

현대조선문학선집 24

혁명시가집

문예출판사

주체91(2002)

Reconstructed from S01.str record id=16802

Works linked from the embedded TOC table: 152

차례

《혁명시가집》에 대하여	1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17
1 조선의 노래	17
2 꽃피는 처녀	18
3 사랑가	18
4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19
5 조선인민혁명군	20
6 반일전가	21
7 피바다가	22
8 가련한 신세	23
2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혁명시가들	24
1 자장가	24
2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25
3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혁명시가들	26
1 전진가	26
2 남산의 푸른 소나무	27
3 자장가(1)	27
4 자장가(2)	28
5 일어나라 동포야	28
6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29
7 명신학교교가	29

8	승덕학교교가	30
9	통군정의 노래	31
10	철봉산	31
11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조국	32
12	장진강 거센 물결아	32
13	배움의 종소리	33
14	봉화산바위터에서	33
15	언덕우에 솔을 심어	33
16	청산속에 묻힌 옥도	34
17	청년활동가	34

**4 조선반일녀성운동의 락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
서 지으신 혁명시가 36**

1	하늘은야 높고	36
---	-------------------	----

5 항일혁명가요들 37

1	조선의 별	37
2	암록강의 노래	38
3	혁명가	38
4	《토벌》가	39
5	내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	40
6	총동원가	40
7	결사전가	41
8	녀자투사가	42
9	녀성해방가	43
10	단결하라 무산대중	44
11	십진가	44
12	적기가	46
13	어린 동무 노래 부르자	46
14	혁명군은 왔고나	47
15	어데까지 왔니	48
16	소년애국가	48
17	유희곡	49
18	혁명군놀이	50
19	유격대행진곡	50

20	혁명군의 노래	51
21	조국해방가	52
22	반일가	53
23	끓는 피는 더 끓어	54
24	인민주권가	55
25	즐거운 무도곡	56
26	반일혁명가	57
27	반일병사가	57
28	불평등가(혁명가)	58
29	혁명의 길	58
30	혁명군이 되었다	59
31	일어나라 무산대중	59
32	무산자의 노래	60
33	가난한 자의 노래	60
34	붉은 봄 돌아왔다	62
35	송별가	62
36	동무야 모여라	63
37	민족해방가	63
38	모두다 반일전으로	64
39	계급전가	65
40	무도곡	66
41	모두다 나서자	67
42	통일전선가	68
43	병사의 무예	69
44	민족해방가	70
45	나오라 혁명전에	71
46	나가자 싸우자	72
47	무산혁명가	72
48	빨찌산추도가	73
49	추도가	74
50	유격대추도가	75
51	옥중투쟁가	76
52	어머니 리별	77
53	망명자의 노래	77

54	백색테로반대가	78
55	요일가	79
56	자유가	80
57	불평등가	80
58	부시자 자본사회	82
59	메데가	84
60	일어나라 만국의 로동자	85
61	로동자가	86
62	월행진곡	86
63	농민혁명가	87
64	녀성의 노래	88
65	응원가	88
66	소년군가	89
67	우리는 아동단원	89
68	아동단가	90
69	무산자의 선봉대	90
70	아동가	91
71	어린이곡	91
72	무산청년가	92
73	광명의 천지	92
74	나도 자라	93
75	해방가	93
76	기민투쟁가	94
77	무산아동가	95
78	반일투쟁가	96
79	끓는 피	97

6 항일혁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98

7 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113

1	장군별	113
2	광명가	114
3	백두산장수	114
4	금란지계전	115
5	천하명장 김일성장군	116

6	우리 장군 만세	116
7	수림속을 뒤흔드는 소리	117
8	바위야 굴러라	118
9	왜놈병정 벼락 맞았네	118
10	《무적황군》	118
11	개눈	119
12	순사돼지 꿀꿀	119
13	단결의 노래	120
14	해방가	121
15	붉은 군인되려고	121
16	자유 의 노래	122
17	차일봉	122
18	향토가	123
19	유격대	123
20	치녀보초병	124
21	벼락 맞았네	125
22	하루밤사이에	125
23	초신	126
24	혁명의 어머니	127
25	혁명가의 안해	127
26	망국노예 설음	128
27	자위단 자탄	128
28	《토벌》가	130
29	평양감옥가	130
30	한양감옥가	131
31	경성감옥가	132
32	연길감옥가	133
33	십진가(2)	134
34	요일가	136
35	달거리	137
36	옹헤야	139
37	어랑타령	140
38	아리랑고개를 허물어버리세	142
39	소년투사의 노래	146

40	우리 아빠 말하더라	147
41	단심가	147
42	단심줄놀이	148
43	눈	149
44	밥값내라 칙칙폭폭	150

《혁명시가집》에 대하여

현대조선문학선집(24)《혁명시가집》에서는 1910년부터 1940년대전반기에 창조보급된 항일혁명시가(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인민가요를 포함하여)를 전면적으로 폭 넓게 수집정리하여 종합적으로 편집하였다.

《혁명시가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친히 지으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비롯하여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가,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께서와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시가 그리고 항일유격대원들이 손에 무장을 잡고 강도 일제와 맞서 싸우는 준엄한 투쟁의 나날에 직접 창작한 혁명가요들과 구호문헌시가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현실을 반영한 인민가요들이 들어있다.

시가들은 모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내용을 우수한 민족적형식에 담아 완벽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식의 새로운 사회주의사실주의창작방법의 특성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친히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창작하시는 과정에 이룩된 가장 영광스러운 문학예술전통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혁명적문학예술의 정수이며 주체의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영원한 생명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아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시던 초기혁명활동시기에도 그리고 탁월한 령군술과 신출귀몰하는 주체의 전법으로 항일무장대오를 이끄시여 간악한 일제원췌에게 불벼락을 안기던 준엄한 격전의 나날에도 몸소 주옥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하시여 대원들을 무적필승의 정신으로 고무하시였으며 혁명적시가지품창작사업을 조국광복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는 숭고한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조선의 노래》, 《꽃과는 처녀》, 《사향가》와 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창작보급된 가요들로서 우리 혁명시가문학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기념비적명작들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고향을 등지고 낯선 이국땅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었던 소년들에게 조선의 넋을 심어주어 그들을 열렬한 반일애국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고 조선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실 숭고한 뜻을 담아 1928년 1월 무송에서 친히 창작하신 작품이다.

이 혁명시가에는 조선의 아름다움과 풍요함, 귀중함에 대한 열렬한 레찬과 그로부터 오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소중한 조국을 빼앗고 짓밟는 강도 일제와 싸워 조국의 존엄과 귀중한 모든것을 되찾고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영원히 부강번영하는 새 나라를 건설하고 길이 빛내여가리라는 숭고한 지향과 념원이 구절마다에 정서적으로 심오하게 일반화되어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에 창작하신 작품이다.

떠나온 고향과 그와 잇닿아있는 소중한 모든것에 대한 애뜻한 추억을 안고 고향땅과 조국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보다 감성적으로, 섬세한 생활정서의 토대로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는 당시 널리 유행되고있던 두고 온 조국땅을 애달프게 노래한 《망향가》와 같은 단순한 가요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혁명가요로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조국관과 향토애의 감정이 짙게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항일대전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나날 한편의 시가 천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총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노래가 적의 심장을 꿰뚫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시가창작사업에서 몸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는 조국광복회의 기치밑에 전체 조선인민을 단합시켜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할데 대한 혁명로선과 전략을 통속적인 가사에 담아 알기 쉽게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가운데서도 《반일 전가》는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혁명시가로서 특별히 주목된다.

1935년 1월 하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만원정을 마치고 돌아 오시던 길에 천교령부근에서 축한을 만나 중태에 빠지신채 발구에 누워계시었다.

대원들은 사령관동지를 부르며 목놓아 울고 적《토벌대》는 꼬리를 물고 달려들건만 사령관동지께서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시였다.

엄혹했던 당시의 정황을 회고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설사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를 쓰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동만의 수많은 일거리들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주저앉으면 조선인민이 일제의 영원한 노예가 된다.

내 머리속에서는 문득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반일전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노래를 낳은 시상이었다....

나는 발구 가까이에 쓰러져있던 왈롱이를 흔들어 앉힌 다음 그에게 가사를 받아쓰게 하였다. 처음에는 나와 왈롱이가 이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쓰러졌던 전우들이 하나들 일어나 노래를 합창하였다.》

절망상태에서 헤매던 대원들은 이 불패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불사조와 같이 일어나 대담하게 적의 포위를 뚫고 사선의 위기를 헤쳐넘었던것이다.

이렇듯 준엄한 시련속에서 태어난것으로 하여 불멸의 명작 《반일 전가》는 사람들의 심장을 그렇듯 세차게 격동시키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가》, 《가련한 신세》는 일제의 식민지폭정하에 온 강도가 피바다에 잠긴 참혹한 정황속에서 죽음만을 강요당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비장한 극적정황속에서 일반화하면서 그로부터의 출로를 혁명적으로 제시하고있다.

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필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우리나라에서 혁명적시가문학의 시원을 열어놓았을뿐아니라 사상적내용의 철학적심오성과 예술적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혁명적시가문학의 역사적뿌리로, 고전적본보기로 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시가들은 반일혁명사상과 숭고한 애국리념을 세련된 시형상으로 노래하고있다는 점에서 이채를 띠고 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지으신 시 《자장가》는 백두광명성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김정일장군님의 탄생과 어리신 장군님의 성장에 대한 어머님의 절절한 기대와 념원을 담고있다. 가요는 강도 일제를 무장으로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밝은 미래를 안아올 민족의 영웅으로 이 땅에 새 세상을 안아올 미래의 태양으로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시는 숭고한 념원과 혁명적기대를 완벽한 동요적형상으로 인상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요는 높은 반일애국혁명사상이 완벽한 동요적형상에 안반침되어 유년기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창조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채를 띤다.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친히 지으신 혁명시가는 선생님께서 내놓으신 《지원》의 위대한 사상과 민족자주정신의 숭고한 애국심에 기초하여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목적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선생님의 시가작품들은 선행한 진보적인 시가들과 당대의 시가들이 도달할수 없었던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를 개척한 혁명시가로서 역사상 처음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내용을 실현하고 직업적인 혁명투사의 서정적형상을 창조하였을뿐만아니라 시가형식에서 민족적정서와 우수한 민족적특성을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우리 나라 시가유산을 자랑차게 장식하였다.

《전진가》, 《명신학교교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통군정의 노래》, 《철봉산》과 같은 시가들은 한결같이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과 민족의 근본이익의 견지에서 출발하여 당대현실의 심각한 모순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그로부터의 출로를 혁명적으로 제시하고있다. 다시말하여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으로 강도 일제와 견결히 맞서싸워 기어이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투철한 반일애국사상과 혁명사상으로 관통되고있다. 특히 무장으로 일제식민지통치를 때려부시고 근로민중이 주인된 인민의 새 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무산혁명에 관한 사상은 선생님의 시가에서 핵을 이루는 기본사상으로 되고있다.

선생님께서 친히 지으신 혁명시가가운데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나라의 기둥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는 노래였다.

가요 《자장가》는 한정된 가정세태료리에 구속되어있던 단순한 종래의 자장가들과는 달리 개인과 민족, 가정과 조국을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진 혁명적료리관계로 격이 있게 형상함으로써 뜻이 깊고 폭이 있는 혁명적인 자장가로 승격시키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에는 단결의 위력과 전투적돌진의 정신을 노래한 《전진가》와 같은 명작들도 있다.

가요 《전진가》는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과감히 뚫고 나가는 전투적이며 전취적인 돌진의 정신과 약동하는 기백과 열정으로 충만되어있는것으로 특징적이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에는 또한 향토애, 조국애를 노래한 혁명교가들이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가요 《명신학교교가》, 《승덕학교교가》들은 당시 단순한 교정료리를 노래하는데 그치고있던 굳어진 기성교가의 틀을 마스고 교가형식에 혁명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교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가였다.

《명신학교교가》는 《지원》의 원대한 사상과 혁명적인 교육리념을 구현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가의 서곡이였다.

가요는 모두 3절로 되어있는데 기세차고 진취적이며 격조높게 형성되고있다는데 그 특성이 있다.

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선생님의 혁명시가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가치있는 유산으로서 선생님의 혁명적의지와 신념을 승화된 정서적정황속에서 감명깊게 전달하여주고있다.

가요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는가 하는 혁명가의 숭고한 인생관문제를 사상적핵으로 심고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조국광복의 길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 다시말하여 조국광복의 길에 나선 투사의 서정적형상을 통하여 불굴의 강毅한 의지와 필승의 혁명적신념을 가지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싸움의 길에 한몸바쳐 나서야 하며 바로 그 길우에 혁명가의 참된 보람과 긍지가 있다는 뜻깊은 사상을 밝히고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장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노래한 혁명시가들이다.

《통군정의 노래》,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철봉산》과 같은 시가들은 다같이 손에 무장을 잡고 광복성전의 진두에 선 투사의 서정적형상을 통하여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격조높이 호소하고있다.

시 《통군정의 노래》에는 나라의 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무장을 잡고 강도 일제와 싸우는 길밖에 없다는 무장투쟁에 관한 사상으로 관통되고있다.

시는 비록 의주의 통군정에 의탁하여 투사의 광복정신과 애국적기개를 노래하고있지만 여기에는 조국광복의 길에 나선 투사들의 혁명적의지와 전투적기개가 폭넓게 일반화되고있을뿐아니라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적방도 무장투쟁과 새 사회건설에 대한 투철한 혁명사상이 축도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시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는 1918년 청수동회의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무산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던 시기 벽동에 있는 동주성 남문루각인 완월루에 오르시여 지으신 시가이다.

이 시에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성전에 몸바쳐 나선 반일혁명투사의 투철한 광복의지가 구절마다 넘쳐나고있다.

시 《철봉산》에는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짓밟은 일제침략자들을 무장으로 때려부시고 기어이 조국광복의 큰 뜻을 이룩하려는 선생님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가 노래되고있다.

실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시가는 우리 나라 시가문학력사상에서 처음으로 시대의 본질과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구현하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내용을 우수한 민족적형식에 담아 보여준 혁명적시가유산으로 되고있다.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강반석녀사께서 지으신 시 《하늘은야 높고》는 어리신 **김일성**대원수님의 성장에 대한 녀사의 숭고한 념원과 혁명적기대가 뜨겁게 어려있다.

가요 《하늘은야 높고》에는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넓은 크나큰 뜻과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무럭무럭 어서 크기 바라시는 녀사의 숭고한 념원과 기대가 노래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조보급된 혁명가요들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강도 일제와 견결히 맞서싸운 준엄한 혈전의 나날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직접 창작한 혁명가요들이다.

항일혁명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 혁명투쟁을 기본내용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다양하고 우수한 민족적형식에 담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혁명로선과 전략적방침을 제시하는데서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혁명적방도를 깊이있게 밝힌 혁명가요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우수한 민족적형식이 훌륭히 결합된 주체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된 참다운 혁명시가의 본보기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과시하고있다.

손에 무장을 잡고 강도 일제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선 항일혁명투사들의 격동적인 체험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노래한 항일혁명가요는 사상적내용의 심오성과 혁명성, 시적표현의 완벽성과 세련성, 형식의 인민성과 통속성으로 하여 거대한 사상정서적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지난날은 물론 오늘까지도 항구적의의를 과시하면서 자랑스럽게 불리워지고있다.

항일혁명가요는 사상주제적내용에서 높은 정치성과 혁명성, 전투성을 띠고있다.

그것은 항일혁명가요가 첨예한 민족적 및 계급적대립으로 충만된 준엄한 혁명적현실을 반영하고있기때문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그것은 또한 가요의 창조자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의 높은 혁명정신과

숭고한 사상의지적인 세계를 그대로 직접 반영하고있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항일혁명가요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혁명정신과 불굴의 기개, 멸적의 전투정신과 락관주의, 혁명적열정과 기백이 맥박치고있으며 그들의 뜨거운 숨결이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혁명가요는 또한 사상주제적내용의 다양성과 풍부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것은 가요형상의 바탕으로 되는 혁명적현실과 혁명투쟁의 내용 자체가 무한히 풍부하고 복잡하고 심오한 특성을 띠고있기때문이다.

항일혁명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힌 혁명의 근본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혁명발전의 때 시기, 때 단계마다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의의있는 사회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폭넓게 반영하였다.

항일혁명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절세의 위인으로, 민족적영웅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리려 칭송한 혁명적송가가 창작보급된것이다.

항일혁명문학은 처음부터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혁명의 수령을 높이 칭송한 혁명송가 《조선의 별》과 같은 기념비적인 작품을 내놓았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조선의 한별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소망과 절절한 축원을 담아 격찬한 심장의 노래, 총성의 첫 송축송가였다.

가요에서는 조국고향산천에 대한 절절한 사랑과 그리움, 간악한 일제를 쳐물리치고 삼천리강산에 광복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번영하는 새 조선의 부강발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을 유일한 광복의 구성으로,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다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가요전반에 차넘치는 숭엄한 송축적정서를 확산시키면서

혁명송가의 고상한 풍격을 훌륭히 돋구어주고있다.

혁명시인 김혁동지는 이밖에도 《혁명가》, 《갈수록 희망에 넘치는 길이어…»와 같은 시가작품들을 창작보급함으로써 항일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전투적기개, 혁명가적자부심을 긍지높이 노래하였다.

항일혁명가요에서는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밝히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는 작품들이 중요한 내용의 하나를 이루고있었다.

가요 《인민주권가》는 인민혁명주권건설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로선을 밝히고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할데 대하여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가요 《통일전선가》, 《민족해방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가요 《민족해방가》, 《모두다 반일전으로》, 《반일가》와 같은 노래들은 조중량국민중의 련합으로 민족해방을 이룩할데 대한 전투적인 사상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항일혁명가요의 사상적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반제혁명사상과 무산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가요들이다.

가요 《총동원가》, 《결사전가》, 《반일혁명가》, 《일어나라 무산대중》, 《무도곡》 등은 일제를 반대하는 반일전선, 반제혁명전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무산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모든 반일혁명력량을 총동원할것을 힘있게 호소하고있는 가요 《총동원가》에서는 일제통치를 뒤집어엎고 인민의 혁명주권을 수립할데 대한 사상을 노래하고있다. 여기에는 무산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있다.

가요 《결사전가》에서는 무산혁명의 시기가 도래한 현실의 성숙된 요구를 제기하면서 부르조아사회를 박멸하는 최후의 결전에 일심의를지로 달려나올것을 로동자, 농민대중에게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반일혁명가》, 《일어나라 무산대중》, 《병사의 무예》, 《나오라

혁명전에), 《계급전가》와 같은 가요들은 반제혁명의 거세찬 불길을 맹렬히 지펴나갈것을 힘차게 호소하고있다.

다음으로 항일혁명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일제통치하의 불평등과 사회계급적모순을 예리하게 해부단죄하고 반제민족해방투쟁으로 힘있게 호소한 가요들이다.

《불평등가》, 《혁명가》, 《무산자의 노래》, 《가난한 자의 노래》, 《로동자가》, 《5월행진곡》 등 가요들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가요에서는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같은 얼마 안되는 무리들은 잘살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근로대중은 헐벗고 굶주리며 못사는 불평등한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예리하게 발가놓고 단죄하면서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를 때려부시는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로동자, 농민, 녀성들에게 호소하고있다.

항일혁명가요의 사상주제적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각계각층 인민들의 계급적각성과 전투적단합을 호소하고있는 가요들이다.

《메테가》, 《5월행진곡》, 《농민혁명가》, 《녀성의 노래》, 《녀성해방가》, 《무산청년가》, 《어린이곡》, 《나도 자라》, 《무산아동가》 등과 같은 가요들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녀성들과 청년들, 소년들의 계급적각성과 자각을 호소하면서 단합된 힘으로 간악한 일제와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인민의 새 세상을 세워나갈 전투적결의를 피력하고있다.

혁명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착취없고 압박없는 사회주의리상사회에 대한 열렬한 동경과 지향을 담은 가요들이다.

가요 《즐거운 무도곡》, 《붉은 봄 돌아왔다》를 비롯하여 《망명자의 노래》, 《유회곡》, 《어린 동무 노래 부르자》 등 많은 가요들은 미래의 새 사회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동경, 확고한 신념과 지향을 짙은 량만적색조로 노래하고있다.

항일혁명가요의 사상주제적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가요의 서정적주인공 항일혁명투사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특징과 성격적풍모를 특징지어주고있는 가요들이다.

항일혁명가요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운 혁명투사들의 불타는 충성심과 숭고한 애국심, 불굴의 투지와 혁명적관주의가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다.

《혁명가》, 《유격대행진곡》, 《적기가》와 같은 가요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혁명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성심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가요 《혁명가》의 서정적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무기를 억세계 틀어잡고 한몸을 불태워 발악하는 제국주의 포악한 원썩놈들을 철저히 소탕해버릴 용맹과 투지로 가슴 불태운다.

이 시가에서 《누리에 붙는 불》, 《철쇄를 마스는 마치》로 선포하면서 혁명의 붉은기를 희망과 투쟁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나가는 투사 서정적주인공은 일편단심 혁명을 위한 길에서 변함없을 불타는 충성심과 원썩와의 결전에서 타협을 모르는 투철한 계급적원칙성, 혁명가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된 혁명가로서의 당당한 모습 그대로이다.

《유격대행진곡》의 서정적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무장투쟁로선을 관철하는 길에 목숨바쳐나선 투사—총신의 전형적모습으로 형상되고있다.

가요에서는 제국주의침략자를 무장으로 때려부시는 판가리싸움에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나선 투사의 불타는 충성심과 백절불굴의 강의한의지를 박력있는 시줄에 담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속에서도 변심없이 혁명에 끝까지 충직하려는 투사의 숭고한 혁명정신은 가요 《적기가》에서도 감명깊게 형상되어 울려나오고있다.

항일혁명가요의 서정적주인공들은 또한 고향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열렬한 사랑을 지닌 숭고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정신의 체현자들이었다.

그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심은 겨레에 대한 단순한 사랑에 머물고있던 민족주의적애국주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로동계급의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을 결합하고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결합한 참다운 사회주의

적애국주의였다.

《압록강의 노래》, 《내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 《어머니리별》과 같은 가요들은 서정적주인공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닌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을 생활적인 감정으로 절절하게 노래하고있다.

항일혁명가요는 또한 항일유격대원들이 간직한 불굴의 강의한 의지와 혁명적라관주의의 심오한 세계를 감명깊은 시적화폭으로 펼쳐 보여주고있다.

《혁명군의 노래》, 《혁명의 길》, 《혁명군이 되었다》, 《추도가》, 《옥중투쟁가》, 《끓는 피》를 비롯한 많은 가요들은 불굴의 기개와 라관주의의 체현자들로서의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를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풍모는 혁명의 불길속에서 미래의 새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는 어린 투사들을 혁명의 교대자로 준비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었다.

《소년군가》, 《우리는 아동단원》, 《아동단가》를 비롯하여 《혁명군은 왔고나》, 《어디까지 왔니》, 《혁명군놀이》와 같은 가요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미래의 믿음직한 혁명가로 자라나는 어린 투사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발랄하고 약동적인 동심적정서로 인상깊게 노래하고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항일혁명가요는 사상주제적내용에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것, 사회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것을 기본으로 담아 보여 줌으로써 혁명적시문학의 사상정치적대를 튼튼히 세워놓을수 있었다.

항일혁명가요는 사상적내용에서 정치성과 혁명성, 전투성을 훌륭히 구현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완벽하게 형상함으로써 당대시대는 물론 오늘까지도 항구적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커다란 감명을 불러일으키면서 생활과 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항일혁명가요는 민족적형식과 혁명적인 내용이 유기적으로 밀착되고있으며 민족적색채가 짙고 소박하고 평이하면서도 통속적인것으로 하여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을 잘 살리고 있다.

항일혁명가요는 전통적인 우리 나라 민요의 우수한 절가형식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현대의 미감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훌륭히 재현하

고있을뿐아니라 가요적구성에서 감정정서의 논리적순차성을 따르면서 까다롭지 않게 간결성과 평이성을 보장하고있기때문에 사상적내용을 알기 쉽고 설득력있게 전달하고있다.

또한 혁명가요의 시어들은 알기 쉽고 간결하면서도 뜻이 깊게 구사되고있으며 표현력이 풍부하면서도 통속적이고 인민적인것이 특징적이다.

혁명가요의 어느 구절, 어느 표현을 들어보더라도 그것은 다 성격이 뚜렷하면서도 평이하고 뜻이 깊은 정치적시어들이며 표현성이 풍부하고 민족적정서가 짙을뿐아니라 소박하고 통속적인 표현들로 되어있다.

혁명가요는 또한 행진곡적인 선률에 어울리게 전반적으로 운율이 박력있고 약동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흘러가는 가요들에서는 은근하고 부드럽게 조직되면서 시가형상의 정서적기복을 훌륭히 조성하고있다.

혁명가요의 창조자들은 손에 무장을 잡고 강도 일제와 견결히 맞서 싸운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적인 인민들이였으며 따라서 그들자신이가요의 서정적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혁명가요는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대중의 집체적지혜에 의하여 창조된것으로 하여 전 인민적인 사상감정과 취미와 요구, 지향이 그대로 정확히 반영될수 있었으며 바로 그러한 특성으로 하여 전투적이며 정론적인 호소성과 열정이 강하면서도 혁명적랑만성과 민족적특성이 풍부히 구현되고있으며 아름답고 숭고한 시적정서가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그러하여 항일혁명가요는 항일무장투쟁의 전 기간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속에 널리 보급되어 불리우면서 총과 칼을 대신하는 혁명의 예리한 무기가 되어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을뿐아니라 시대와 세월을 넘어 오늘까지도 커다란 견인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근로자들에 대한 충실성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혁명적구호문헌시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이 시기 창작된 혁명적구호문헌시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과 위인상, 3대위인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숭배심과 불타는 충성심, 조국과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에 대한 한없는

열망과 철의 의지를 생활적으로 절절하게 노래하였다.

혁명적구호문헌시들은 혁명적인 내용을 짙막하고 함축된 시행에 담아 정론적이고 전투적이며 광만적인 정서로 노래하면서 강한 설득력과 호소성, 동원적인 특성을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채를 띠고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는 혁명적현실을 반영한 인민가요들도 수많이 창작되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창작보급된 인민가요는 항일무장투쟁의 이러한 격동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하늘이 낸 백두의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적인 풍모와 항일유격대의 불패의 위력, 일제원췌놈들의 취약상과 패망상을 구전적인 가요형태로 창조하여 전승하여온 인민창작작품이다.

인민가요는 창조자들의 정서적체험과 탐구와 사색과 같은 창조 과정이 동반되어 서사작품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구전적으로 전승보급되는 과정에 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 창조적지혜와 예지가 반영된 집체적인 창조물로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인민대중의 소박하고 진실한 감정이 뜨겁게 맥박치고있으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무적의 혁명대오의 불패성에 대한 확신과 자랑, 승리의 필연성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굽이치고있다.

구전적인 인민가요에서는 전설적영웅이시며 자유와 해방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철출명장으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고 찬양하면서 수령님의 위대성과 탁월한 령군술을 신격화하며 궁지높이 노래한 가요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장군별》을 비롯하여 《광명가》, 《백두산장수》, 《금란지계전》, 《천하명장 김일성장군》, 《우리 장군 만세》와 같은 가요들이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가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두운 삼천리강산에 자유와 광복의 서광을 밝혀줄 희망의 등대로 높이 우러러 칭송하면서 수령님을 마음의 등대로, 유일한 희망의 별로 믿고 의지하며 그이께 전적으로 운명을 의탁하고 살며 싸워가려는 우리 겨레의 절절한 소망과 굳은 신념의 세계를 노래하고있다.

인민가요는 또한 항일유격대의 백전백승의 기상과 위력에 대하여 자랑차게 노래하고있다.

가요 《수림속을 뒤흔드는 소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항일유격대의 멸적의 전투정신과 필승불패의 위력, 일제놈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며 승승장구하는 용맹하고 슬기로운 모습을 자랑차게 노래하고있다.

또한 《유격대》, 《바위야 굴러라》, 《치너보초병》, 《우리 아빠 말하더라》를 비롯하여 많은 가요들이 항일유격대의 전투위훈과 무적필승의 위용을 노래하고있다.

구전인민가요는 또한 항일유격대의 불벼락에 얻어맞고 녹아나는 일제침략군의 가련한 몰골과 멸망을 통쾌하게 조소풍자하고있다.

《왜놈병정 벼락 맞았네》, 《무적황군》, 《개눈》, 《하루밤사이에》, 《순사돼지 꿀꿀》, 《어랑타령》 등과 같은 가요들을 그 실례로 들수 있다.

이밖에도 인민가요에서는 항일유격대원들의 불굴의 혁명적기개와 락관주의를 노래한 《차일봉》, 《평양감옥가》, 《경성감옥가》, 《연길감옥가》, 식민지인민들의 비극적처지와 계급적각성을 호소한 《망국노예 설음》, 《십진가》(2), 《자위단자탄》, 각계각층 인민들의 통일단결을 호소한 《단결의 노래》, 《단심가》, 《단심줄노래》, 항일유격대에 대한 적극적인 원호와 군민일치의 사상을 노래한 《유격대》, 《초신》, 《혁명의 어머니》, 《혁명가의 안해》, 일제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인민의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사상을 노래한 《요일가》, 《달거리》, 《옹헤야》, 《아리랑고개를 허물어버리세》 등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있다.

인민가요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적군중들과 인민대중에 의하여 창조보급된 혁명적인 구전가요로서 선행시기 창조된 구전작품들에 비해 일련의 차이와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항일구전가요가 민족적인 계급적모순의 첩예한 대결장인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적현실을 직접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내용으로 관통되고있다는것이다.

항일구전가요는 또한 항일의 영웅적현실에 토대하여 창조전승된것으로 철저히 객관성과 진실성, 현실성이 보장되고있다는것이다.

구전인민가요는 또한 일제침략군의 략탈적본성과 멸망상을 색채있게 부각시키기 위하여 시적형상에서 풍자해학적수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이처럼 인민구전가요는 인민적예지와 슬기가 충분히 발양되고 그들의 지향과 정서가 풍부히 구현되어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현대구전가요로서의 특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선행구전가요의 연장선상에서 가장 높은 사상예술적경지에 이른 귀중한 유산으로 되었다.

리 동 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

조선의 노래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나라
이 세상 그 어데 찾아볼수 있을까

3천리강산에 은금보화 넘치고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간악한 왜놈들 이땅에서 내쫓고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S01.str id=9870

꽃 파는 처녀

1.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어여쁜 빨간 꽃
향기롭고 빛갈 고운 아름다운 빨간 꽃
앓는 엄마 약 구하러 정성담아 가꾼 꽃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꽃이꽃 빨간 꽃
2. 산기슭에 곱게 피는 아름다운 진달래
산기슭에 피어나는 연분홍빛 살구꽃
꽃 사시오 꽃 사시오 이 꽃을 사시면
설움많은 가슴에도 새 봄빛이 안겨요

S01.str id=2899

사 향 가

1.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2. 우리 집에서 멀지 않게 조금 나가면
작은 시내 돌돌 흐르고 어린 동생들
뛰노는 모양 아 눈에 삼삼해
3. 대동강물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
꿈결에도 잊을수 없네 그리운 산천
광복의 그날 아 돌아가리라

S01.str id=2900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

1. 2천만의 조선동포 총 동원하여
반일혁명통일전선 굳게 다지고
왜놈의 야만통치 어서 때려부시어
인민정부 건설함이 제1조로다
2. 로동자와 농민들은 한데 뭉치고
각계각층 군중들과 련합을 하여
있는 재부 지식 능력 모두다 동원하여
부강조선 건설함이 제2조로다
3. 왜놈의 룡해공군 신식무장을
모두다 우리 손에 빼앗아쥐고
주저말고 용감하게 모두 나가 싸우는
우리 군대 조직함이 제3조로다
4. 왜놈의 개떼들이 모아둔 돈은
우리 동포 피땀흘려 벌어준거다
모조리 빼앗아서 군비로 충당하고
동포도 구제함이 제4조로다
5. 재촉하는 빛과 세납 물지를 말며
착취하는 전제제도 반대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 손으로 건설해
순조롭게 발전함이 제5조로다
6. 언론 출판 사상결사 자유를 찾아
봉건세력 백색테로 반대하고서
체포된 우리 투사 모두 탈환해내어
배신자를 쫓아냄이 제6조로다
7. 량반상놈 남너로소 가리지 말고
한결같은 평등 행복 누리가면서
연약한 부녀들을 존중하고 돌보아

인격직위 보장함이 제7조로다

8. 우리 민족 노예 삼는 동화교육과
쌀터에서 죽이려는 군사훈련을
곧세게 반대하며 튼튼히 뭉쳐나서
우리 문화 보급함이 제8조로다
9. 우리들이 쓰는 물건 만들어주는
로동자의 임금과 대우 높이고
실업자와 병든자를 지성껏 도와주며
치료하고 살려줌이 제9조로다
10. 우리들을 도와주는 나라와 민족
친밀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원췌와 한편되는 간악한 부르췌아
한결같이 반대함이 제10조로다

S01.str id=2901

조선인민혁명군

1. 우리들은 조선인민혁명군
혁명 위해 싸우는 붉은 전투원
우리들의 투쟁강령 정의로우니
강령을 관철시켜 힘껏 싸우자
2. 조선을 강점한 강도 일제는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려고
수다한 룡해공군 파견하고서
무수한 군사시설 만들고있다
3. 놈들의 군사시설 군사력량은
무산자대중을 학살들 한다
놈들의 룡해공군 몰아들 내고
무수한 군사시설 때려부시자

4. 파썸적인 일제의 통치배들은
무수한 감옥을 만들어놓고
별의별 개떼군대 조직하고서
무산대중 진압의 도구로 쓴다
5. 사회의 불평등과 민중압박을
위만군병사에게 폭로를 하여
망국노예 병사질을 집어치우고
병변을 일으키여 나오게 하자
6. 악독하고 교활한 일제놈들은
무수한 법령을 만들어놓고
각종의 세납을 거둬들이어
무산대중학살의 군비로 쓴다
7. 무산자대중을 소멸하려고
간곳마다 노예교육 강요하면서
인민의 사상을 마취시키려
강제로 일어를 배우게 한다
8. 야수같이 악착하게 압박을 하니
우리들은 군중에게 호소를 하여
일제놈의 파썸적인 통치제도를
한결같이 일어나서 때려부시자

S01.str id=2902

반 일 전 가

1. 일제놈의 발굽소리는 더욱 요란타
금수강산 우리 조국 짓밟으면서
살인방화 착취략탈 도살의 만행
수천만의 우리 군중을 유린하노나
2. 나의 부모 너의 동생 그대의 처자

놈들의 총창끝에 피흘렸고나
나의 집과 너의 발은 놈들의 손에
재더미와 황무지로 변하였고나

3. 우렁차게 들려오는 반일전소리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고향
반일하는 수천만의 웨침소리는
놈들의 가슴을 서늘케 한다
4. 《왕도락토》 세우려는 놈들의 몽상
반역자는 발버둥치며 찢찢들 맨다
대포 땅크 비행기로 미쳐날뛰며
일기 이기 《대토벌》을 진행하노나
5. 혁명세력 장성함을 보지 못하고
백색테로 겁에 질린 리기분자는
놈들의 포소리에 흔들리어서
혁명을 배신하고 투항을 한다
6. 일어나라 단결하라 로력대중아
굳은 결심 변치 말고 싸워나가자
붉은기아래 백색테로 뒤엎어놓고
승리의 개가높이 만세 부르자

S01.str id=2903

피 바 다 가

1. 설한풍 스산한 원한의 피바다야
참혹한 주검이 묻노니 얼마나
혁명에 피흘린 자 그 얼마나 달하였나
2. 죽은자 가족의 비참한 그 모습과
기막힌 원통에 가슴이 터진다
사무친 이 원한을 천만추에 못잊으리

3. 락심을 말아라 전 세계 무산자야
혁명자 하나의 죽음의 피값에
십륙억칠천만의 무산정권 수립된다

S01.str id=2904

가련한 신세

1. 저녁해발은 서산에 잠기고
공중에 나는 새 집으로 가는데
불쌍한 이내 몸 외로운 이 신세
의지할 곳이 그 어데더냐
2. 기러기 날으는 저 하늘가에
정다운 사람들 그 모습 어리네
이 몸은 그 언제 내 집에 돌아가
봄씨앗 뿌리며 부모님 모시랴

S01.str id=2905

2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지으신 혁명시가들

자 장 가

1.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총칼을 메고
조국해방 만세소리 활발한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2. 아가아가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어서 자라 속히 자라 붉은기 들고
공산주의 새 세상 떨치는 곳에
너 앞서고 나 뒤에 나가 싸우자

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N백두산에

장수별 떴다

백두산장수별

삼천리를 비친다

(1936년 9월 백두산밀영지에 쓰신 구호글발)

S01.str id=2907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서 지으신 혁명시가들

전진가

1.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꼭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यो
우리들의 적은 지식 발달하기는
천신만고 지난후에 능히 하리라
(후렴)
청년들이 가는 앞길 태산과 같이 험하다
고생함을 락심말고 나아갈 때에
청년들이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케
2. 오고가는 바람형세 맹렬한것은
무형무색 공기들이 회합함ियो

우리들의 적은 사업 성취하기를
너심초사 힘써함이 이것 아닌가
(후렴)

(1916년 3월 명신학교에서)

S01.str id=2908

남산의 푸른 소나무

1.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2.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3.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1918년 11월 초 만경대에서)

S01.str id=2909

자 장 가 (1)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 잠간 소학교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영웅동
우리 나라 영웅동

S01.str id=2910

자 장 가 (2)

1. 아가야 자장자장 어서 자거라
아가야 자장자장 잘두 자누나
친척에는 화목동 부모님께 효자동
사랑 있다 장중보옥 능할하 자장
2. 아가야 자장자장 얼른 소학교
아가야 자장자장 벌써 중학교
박사동이 되여라 영웅동이 되여라
우리 나라 광복사업 능할하 자장

S01.str id=2911

일어나라 동포야

1.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아 사나운 파도우에
티끌처럼 떠다녀도 울지 말아 우리 민족아
우리 나라 회복할 날 멀지 않으리
2. 왜놈을 내쫓지 않고서는 행복하게 살수 있으랴
우리 대에 못이룬다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우리 나라 국권을 반드시 찾자

3. 봉화산기세는 장군과 같고 수수밭은 병졸같고나
우리 군대 일떠세우고 우리 동포 힘을 길러서
원췌 부시고 독립을 맞이하리라

S01.str id=2912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1. 달 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 바라보니 감개 깊어라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저 노래
구룡산기슭에 메아리치네
2. 네 모습 예로부터 아름다워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줬건만
왜놈의 학정아래 눈물지으니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네
3.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 말어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4.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1918. 11. 벽동군
완월루에서)

S01.str id=2913

명신학교교가

1. 봉화산 기세있게 여기 솟았고

열파강이 흘러내려 감돌아드는
우리의 명신학교는 반석우에 터를 닦고
높이높이 솟아서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빛나리

2. 국가의 큰 인물도 여기서 나며
 국가와 큰 재목도 여기서 나네
 봉화산과 열파강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명신학교를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보존하세

3.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학도야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 분발해
 동 터오는 새 조선을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만드세 (1916년 5월 하순 봉화리 명신학교에서 보급)

S01.str id=2914

승덕학교교가

1. 앞에는 무량산 뒤에 대동강
 동에는 떡밭에 서에 봉황산
 산 좋고 물 맑은 송오마을에
 자랑높이 승덕학교 서있다네

2. 배움의 글소리 하늘높이 닿고
 무쇠힘 키우는 구렁 요란타
 씩씩하게 자라세 청년학도들
 우리들이 나갈 길 양양하다네

3. 산천의 초목도 우리것이고
 광명한 래일도 우리것일세
 나가세 한마음 용진스럽게
 우리 학교 승덕학교 만세 만만세
 (1916년 11월 송도리 송호구역 봉도리)

통군정의 노래

1. 백두산 정기 품고 흘러 2천리
배노래 구룡포에 처량하구나
전립을 옆에 끼고 백마산 보니
의주라 통군정은 희망을 주네
2. 압록강 푸른 물에 붉은 피 흘러
현해탄 흡혈귀를 전멸하자고
삼각산마루에서 맹세 다지니
의주라 통군정은 싸움터로다
3. 백일원 넓은 뜰에 군사를 길러
물 건너 압제자를 구축하고서
무산자 새 사회를 건설하리라
의주라 통군정은 개선각이다

철 봉 산

높이 솟은 철봉산아
물결 푸른 압록강아
청산류수 바라보니
절승경개 예로구나

설음안고 떠나간이
큰 뜻 품고 돌아왔네
철봉산아 울려다오

독립군의 총소리를

(1920년 5월 청수동 룡소에서 읊으신 즉흥시)

S01.str id=2917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조국

산 좋고 물 맑은 아름다운 내 조국
금수강산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
산과 들엔 오품백과 무르익고
동해의 어별들은 헤엄쳐논다

백두의 높은 기상 곳곳이 품고
반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내 나라
왜놈들을 이 땅에서 때려부시고
자유조선 회복위해 용감히 싸우자
(1925년 백산학교에서 사용한 교재)

S01.str id=2918

장진강 거센 물결아

장진강 거센 물결아
너는 애국지사들의 푸른 넋과
이 나라 백성들의 뜻을 담아신고
양춘 맛을 그날을 향해
호르고 또 흐르라

(1923년 9월 장진강가 섬바위 낚시터에서 읊으신
즉흥시)

S01.str id=2919

배움의 종소리

배움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린다
우리모두 씩씩하게 학교로 가자
우리 말 우리 글 어서 배워
나라찾을 큰 마음 키워나가자

(1918년 명신학교 학생들에게
배워주신 노래)

S01.str id=2920

봉화산바위러에서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 헤쳐가며
푸르싱싱 높이 자란 소나무의 소원은
푸른 가지에 불사조를 앉히는것이며

세상에 태어난 인생으로 가장 보람찬 일은
오직 한마음 자기 나라를 위하여
변심없이 싸워나가는것이다

(1916년 봄 읊으신 시)

S01.str id=2921

언덕우에 솔을 심어

언덕우에 솔을 심어
십년 배양 다 자랐다
곧은것은 재목되고
굽은것은 화목된다

우리모두 굳게 뭉쳐
몸과 마음 다쳐가자

청산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만 빛이 난다

(1921년 9월 포평레배당에서
청년들에게 배워주신 노래)

S01.str id=2922

청산속에 묻힌 옥도

...

청산속에 묻힌 옥도
갈아야 빛이 나고
락락장송 큰 나무도
다듬어야 대들보가 된다

(1919. 9 중강진 신성학교에서 읊으신 시)

S01.str id=2923

청년활동가

청년의 시대를 만났으니 나의 할 일은 활동이다
활동의 의무 무엇이나
밝고밝은 20세기 활동시대를 만났으니
남아 이십이 나이가 적어서 활동을 못할가

와생도는 누구이며 제갈량은 누구인가
적도 역시 천생지로 의기남아로다
부귀자와 비천의 종류가 왜 있을가
부귀와 귀천이 몰레돌듯 돌아만 간다

열흘 피는 꽃이 없고 10년 가는 새가 없으니
청년의 제군은 락심말고 때를 찾아 활동하라
때를 만난 봉도새는 만리창공에 높이 날고

봄을 만난 풀과 나무는 또다시 사누나

크고작은 저 산악은 적은 티끌 쌓임이요

넓고넓은 저 대양은 가는 내를 모음이라

청년이 시대를 만났으니 허송세월 하지 말고

지식숙련과 체력발전이 급무로구나

(《청년활동가》는 선생님께서 포평에서 활동하실 때

청년들에게 풍금을 타시며 친히 보급하신 노래)

S01.str id=2924

4

조선반일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지으신 혁명시가

하늘은야 높고

하늘은야 높고
땅은야 넓다
너는 그래 이다음에
하늘땅보다 더 크거라

항일혁명가요들

조선의 별

1.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3천리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2. 캄캄한 밤하늘 바라다보니
신음하는 조국산천 어리어오네
변치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마음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3. 간악한 강도 일제 쳐물리치고
3천리에 새별이 더욱 빛날제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압록강의 노래

1.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너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2.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젠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S01.str id=2927

혁 명 가

1.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후렴)
계걸든 소리에 목이 쉬리
우리 피 짜내던 놈들아
맹렬한 최후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2. 원쑤들 아직도 발악을 한다
그러나 조종은 울렸다
포악한 원쑤의 무리들을
우리는 용서치 않으리
(후렴)
3. 무기를 잡으라 억눌린 자들아
멍에를 벗어라 종된 자

우리의 앞에는 희망뿐이요
나가세 앞으로앞으로
(후렴)

4. 원쑤의 잔피에 속지 말아라
계급의 용감한 투사들
자본의 사회를 부신 터우에
무산자정권을 세우자
(후렴)
5. 건설의 주인들 다 일어나라
로력의 자손들 나오라
판가리싸움을 위하여
우리의 대오는 백배해
(후렴)

S01.str id=2928

《로벌》가

1. 어머니 어머니는 왜 우십니까
어머니가 울으시면 울고싶어요
품안에 안기어서 울음을 운다
2. 돈이 없고 무기 없는 우리 민족은
총에 맞고 칼에 찔려 죽은 자중에
네 아버지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3. 애처롭고 슬프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몸이 찢겨 원통하게도
네 아버지 원한 품고 돌아갔구나
4. 흐르는 눈물을 서로 닦으며
생각하니 살아갈 길 막막하구나
원한의 거친 땅에 찬바람 분다

5. 울지 말자 아이들아 울지를 말자
운다고서 이 원한이 가지여지랴
저 산을 넘어가서 살길을 찾자
6. 억눌리고 짓밟히는 인민을 위해
이 한목숨 다 바쳐 싸워가리라
혁명의 붉은 맹세 굳게 다진다

S01.str id=2929

내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이 부른 노래—

1. 내 조국아 잘 있거라 나는 떠난다
내가 간들 조국산천 어찌 잊으랴
내 한목숨 바치여서 성공한후에
압록강 푸른 물을 다시 건느리
2. 내 조국아 잘 있느냐 다시 묻노라
일제놈의 짓밟힘도 한때 일이라
장엄하다 금수강산 어찌 변하랴
못잇을 내 조국을 한품에 안으리

S01.str id=2930

총 동원가

1. 나가자 나가자 싸우러 나가자
용감한 기세로 어서빨리 나가자
제국주의군벌들은 죽기를 재촉코
강탈과 학살을 여지없이 하노나
2. 왔고나 왔고나 혁명이 왔고나

혁명의 기세는 전 세계를 덮었다
돈없는 로동자 망치 메고 나오고
땅 없는 농민은 호미 메고 나오라

3. 밥 짓던 누나는 식칼들고 나오고
글 읽던 오빠는 책상들고 나오라
아세아 무산자 구라파 로동자
전 세계로동자 총 동원하여라
4. 세우자 세우자 인민의 주권을
붉은기 들고서 우리 주권 세우자
지주놈의 토지와 주구놈의 재산을
혁명주권밑에서 골고루 나누자

S01.str id=2931

결사전가

1. 착취 받고 압박 받는 무산대중아
혁명의 결전에 달려나오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온 천지에
무산혁명시기가 다달았네
여지없이 부서내자 부르쥬아사회를
날날이 박멸하자 제국주의아성을
2. 로동자는 망치를 둘러메고
농민은 쟁이와 호미를 메고
부르쥬아 박멸하는 최후결전에
한마음한뜻으로 달려 나오라
여지없이 부서 내자 부르쥬아사회를
날날이 박멸하자 제국주의아성을
3. 장쾌하다 시가전은 곳곳에 일고
류산탄은 적진우에 파렬되누나
부르쥬아 더러운 피 땅을 적시고

무산혁명시기가 다달았네
붉은기는 중천에서 펄펄 날리고
부르쥬아 낡은 기는 빛을 잃고 찢겼네

4. 우리 땀과 우리 피로 배를 채우고
탐욕과 향락으로 진탕거리던
부르쥬아소굴인 궁전우에는
무산혁명정부기가 나뭇긴다
붉은기는 중천에서 펄펄 날리고
부르쥬아 낡은 기는 빛을 잃고 찢겼네
5. 전 세계 무산자는 서로 도우며
모두다 단결하여 싸워나가자
고초도 죽음도 두려움없이
광명에 싸여서 힘을 다 낸다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할 때에
새 사회의 주인공은 우리모두다
6. 서로 뜯는 부르쥬아군벌놈들을
단두대에 목을 잘라 복수를 하고
평화와 자유의 기발아래서
승전고를 울리는 우리의 세상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할 때에
새 사회의 주인공은 우리모두다

S01.str id=2932

녀자투사가

1. 이십세기 용감한 녀성투사들
문명한 활무대에 나서 싸우자
로동자와 농민의 자유해방은
무산자의 굳고굳은 단결에 있다
2. 만민이 행복스런 공산사회는

반수의 너자의 힘 요구를 한다
붉은기를 펄펄 날려 우리 조선의
금강산 제일봉에 꽂으리로다

3. 암흑의 인습으로 갇힌 여성들
구속의 철망을 끊어버리고
남녀평등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
우리들도 같이 나가 싸워 이기자

S01.str id=2933

여성해방가

1.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못피운 원한
아느냐 그대여 여성동무들
2. 남몰래 조용히 우는 눈물로
청춘의 고운 낮에 주름 생기고
매맞아 얻은 병 살기 싫어요
3. 골방안 감옥살이 언제 끝나나
꿈에도 싫어요 나는 싫어요
멸시와 천대는 더욱 싫어요
4. 아버지 어머니 나의 오빠여
지주놈 장리빚에 날 팔지 말고
차라리 이내 몸을 없애버려요
5. 여성들 우리 동무 다 일어나라
부르쵸아제도를 없애버리고
동등한 권리위해 총들을 들자
6. 얽매여 하는 결혼 멍에를 벗고
구속에서 용감히 뛰쳐들 나와

동등한 권리를 다같이 찾자

S01.str id=2934

단결하라 무산대중

1. 바람차고 눈 쌓인 황막한 광야에
흰옷 입고 떠난 사람 얼마이던가
2. 자유 없고 돈 없는 불쌍한 신세
간곳마다 압박과 착취뿐이다
3. 삼천리금수강산 다 빼앗기고
고향의 정든 친구 다 리별했다
4. 몰아치는 찬바람에 몸을 떨면서
짐승같은 농노신세 가련도 하다
5. 일년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는
흡혈귀가 모조리 다 빨아간다
6. 늙은 부모 어린 동생 보채는 소리
가슴에서 끓는 피가 용솟음친다
7. 붉은 주먹 번쩍 들어 저주를 하며
싸우지 않고서는 못견디겠다
8. 총 쏘고 폭탄 던져 싸울지라도
단결없이 농노신세 면할수 없다

S01.str id=2935

십진가

1. 하나이라면 한목적 공산주의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해
전 세계 무산자는 단결하여라 단결하여라

2. 둘이라면 둘이 함께 살지 못할
두 계급이니 두 계급이니
유산계급 무산계급 투쟁하여라 투쟁하여라
3. 셋이라면 삼대조직 강화하여
나아갑시다 나아갑시다
당조직 공청단체 아동단이다 아동단이다
4. 넷이라면 너는 도시로동자
나는 빈농민 나는 빈농민
튼튼한 동맹으로 새 사회 세워 새 사회 세워
5. 다섯이라면 다같이 참가하자
산업건설에 산업건설에
5개년계획을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6. 여섯이라면 여러가지 해를 끼친
파쟁분자를 파쟁분자를
대렬에서 깨끗이 쓸어내시다 쓸어내시다
7. 일곱이라면 일제놈과 지주놈의
땅을 빼앗아 땅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에게 나눠줍시다 나눠줍시다
8. 여덟이라면 여덟시간로동제
실시하면서 실시하면서
생산과 학습에 열중하여라 열중하여라
9. 아홉이라면 아름다운 내 조국을
해방하고서 해방하고서
인민의 혁명정권 건립합시다 건립합시다
10. 열이라면 열번을 죽더라도

한번 먹은 맘 한번 먹은 맘
조금도 변치 말고 힘껏 싸우자 힘껏 싸우자

S01.str id=2936

적 기 가

1.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싣다
시체가 식어 굳기전에
혈조는 기발을 물들인다
(후렴)
높이 들어라 붉은 기발을
그밀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
2. 원썩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꺾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후렴)
3. 붉은기를 높이 들고
우리는 나갈 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
이것이 교별의 노래란다
(후렴)

S01.str id=2937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자유의 강산에서 우리 자라고

평화의 락원에서 꽃피려 하는
새 나라 어린 동무 노래부르자
세상에 부러울것 그 무엇이냐
창공에 붉은 해 찬란한 그 빛
창공에 밝은 달 명량한 그 빛
바다에는 별들이 꼬리쳐 놓고
푸른 들엔 양떼들이 무리져 논다
동무들 어린 군인 노래부르자
혁명주권 굳게 잡은 자유의 터에
영원한 자유평등 모두 찾으려
온 세상 어린이여 다들 오너라

S01.str id=9875

혁명군은 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붉은기 휘날리며 왔고나
혁명의 총을 메고 돌아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왜놈을 쳐부시고 왔고나
승리의 노래높이 돌아왔고나
혁명군은 왔고나
우리 마을에 왔고나
우리도 어서 커서 가자야
혁명의 총을 메고 어서 가자야

S01.str id=2938

어데까지 왔니

어데까지 왔니 마을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학교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공부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개울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뒤산까지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훈련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어데까지 왔니 숲속까지 왔다
어데까지 가려니 고개너머 간다
무엇하러 가려니 왜놈치러 간다
누구하고 가려니 우리모두 간다

S01.str id=9876

소년애국가

무쇠팔격 돌근육 소년남아야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여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소년의 활동시대 다달았네
원쑤치는 훈련하여 후일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애국자의 더운 피 가슴에 끓고
렬사들의 팔다리는 민활하도다
원쑤의 총칼이 앞을 막아도
우리는 조금도 두려움 없네
원쑤치는 훈련하여 후일전공 세우세
절세영웅 대사업이 우리 목적 아닌가

S01.str id=9877

유 희 곡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우리 즐거웁게 손뼉치며 놀아보자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우리 즐거웁게 발구르며 놀아보자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우리 즐거웁게 춤을 추며 노래하자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어깨걸고 둘러서서 우리 희망 말해보자
나는나는 될터이다 교육가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교육가가 될터이다
우리 나라 문맹자를 모두모두 퇴치하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교육가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의학자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의학자가 될터이다
먹지 못해 입지 못해 병든사람 고쳐주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의학자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음악가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음악가가 될터이다
착취받고 압박받던 그 정신을 씻어내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음악가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문학가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문학가가 될터이다.
굶주린자 헐벗은자 그 형상을 그려내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문학가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군무자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군무자가 될터이다
군벌지주 자본가를 무장 들고 몰아내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군무자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공학자가 될터이다
웁다웁다 네가네가 공학자가 될터이다
새 기계를 만들어서 사회생산 높이려
웁다웁다 네가네가 공학자가 될터이다

나는나는 될터이다 녀성투사 될터이다
옳다옳다 네가네가 녀성투사 될터이다
이때까지 압박받던 녀성해방 찾으려
옳다옳다 네가네가 녀성투사 될터이다
나는 나는 될터이다 아동단원 될터이다
옳다옳다 네가네가 아동단원 될터이다
자본사회 타파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려
옳다옳다 네가네가 아동단원 될터이다
우리우리 동무들아 기쁜 날을 만났으니
우리우리 즐거웁게 붉은기 메고 나가보자

S01.str id=9878

혁명군놀이

혁명군아 혁명군아 너 어데 가나
총과 폭탄 가지고 어데로 가나
왜놈들을 때리러 저기로 간다
혁명군이 되려면 너도 갈수 있다
혁명군아 혁명군아 너 어데 가나
총과 폭탄 가지고 어데로 가나
량반부자 때리러 저기로 간다
혁명군이 되려면 너도 갈수 있다
혁명군아 혁명군아 너 어데 가나
총과 폭탄 가지고 어데로 가나
우리 나라 찾으려 싸우러 간다
혁명군이 되려면 너도 갈수 있다

S01.str id=2939

유격대행진곡

1.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 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후렴)

나가자 판가리싸움에 나가자 유격전으로
손에 든 무장을 튼튼히 잡고 나갈 때에
용진용진 나아가세 용감스럽게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수를 치자

2. 우리 대장 사격구령 한번 웨칠 때
전대동무 겨냥총을 받들어쥐고서
악악 소리 웨치면서 몰사격바람에
적의 군사 정신없이 막 쓰러진다
(후렴)

3. 기세 맞춰 승리의 함성 드높이
전대동무 무장 뺏아 둘러메고서
승전고에 걸음 맞춰 노래 부르며
어깨춤을 모두 추며 돌아오누나
(후렴)

4. 썩어가는 제국주의 뿌드려부시고
무너진 그 터전에 새터를 닦고
인민의 혁명정권 건설하고서
붉은기를 휘날리며 나아들 가자
(후렴)

S01.str id=2940

혁명군의 노래

1. 설한풍이 휩쓰는 험한 산중에
결심 품고 싸워가는 우리 혁명군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 자가 그 얼마나

2. 지동치듯 몰아치는 거세찬 바람
사정없이 살점을 떼어갈 때에
산림속에 눈 깔고 누워 잘 때면
끓는 피는 더욱더 뜨거워진다
3. 지친 다리 끌고서 보보행진코
주린 배를 움켜쥐고 힘을 돋군다
가시덤불 험한 길 앞을 막아도
목적하는 혁명위업 이룩해가자
4. 끓는 피로 맹세한 동지를 잃고서
피롭고도 모진 싸움 해내오다가
우뢰처럼 떨치는 돌격소리에
공산주의 승리의 기 펄펄 날린다

S01.str id=10923

조국해방가

1. 반일전선기발을 든 조종민중들
자유행복 찾으려는 반일투사들
일제세력 뒤를 이어 무너져가고
민족혁명승리는 눈앞에 있다
2. 일제의 대《토벌》이 심하여져도
곳곳마다 유격구는 늘어만 가고
농들의 방화학살 끊임없어도
전 민족 반일열은 높아만 간다
3. 조선인민혁명군은 나날이 늘고
반일군대 모두다 힘을 합하여
도시와 농촌을 해방하고서
일제의 세력을 때려부신다

4. 위만군과 자위단은 각성을 하여
망국노예 면하고 개죽음 앓게
병변을 일으키고 달려나와서
놈들을 향하여 총 사격하자
5. 일제놈들 숨을 구멍 찾지 못하고
주구들은 살길을 알지 못하여
가슴 뜯고 눈물 짜는 놈들의 몰골
참으로 가련코도 불만 하고나
6. 동무들아 더 한층 용기를 내어
가렬한 새 전투를 전개하여서
근로대중 모두다 단결시키고
반일세력 튼튼히 연합을 하자
7. 일제놈들 모조리 때려부시고
삼천리 금수강산 해방하고서
인민혁명정부를 건립한 후에
평화의 락원에서 살아들 보자

S01.str id=2941

반 일 가

1. 압박 받는 인민들아 무장하여라
모순 많은 제국주의강도놈들은
1차대전 피비린 내 가시기도전
2차대전 개시하고 살륙을 한다
2. 일제는 조선과 만주 점령코
간곳마다 방화학살 레사로 하고
련이어 반혁명을 감행하면서
중국본토 삼키려고 발광을 한다
3. 간악한 군벌관료 주구놈들과

개량주의 파쟁주의 개떼놈들은
일본제국 강도에게 서로 굴복해
농촌《토벌》민중학살 맘대로 한다

4. 압박 받는 인민들아 기억하느냐
짐승같은 일본놈의 지휘밑에서
기만적인 《한인자치》부르짖는건
더러운 반혁명적배족행위다
5. 압박 받는 인민들아 무장하여라
조중인민 련합전선 공고히 하고
민족의 통일전선 굳게 지어서
민족해방 반일전선기발 높이 들자
6. 일제놈을 모조리 때려부시고
놈들의 파썸제도 전복하고서
일제의 주구놈들 《민생단》들과
개량주의 개떼놈들 때려부시자
7. 인민혁명정부는 우리의 정권
우리의 손으로 세워나가자
온 세계 벗들과 단결하여서
최후승리 기쁜 노래 함께 부르자

S01.str id=2942

끓는 피는 더 끓어

1. 모여라 동무들아 붉은기아래
한마음한뜻으로 모여들어라
폭탄과 권총을 손에다 들고
주권을 틀어쥐려 모여들어라
2. 우리 피땀 빨아내던 자본가들은
총창끝에 쓰러지며 아우성친다

제놈들의 썩은 통치 무너지더니
간곳마다 갈팡질팡 계걸음친다

3. 눈보라 몰아치는 황막한 벌판에
쓰라린 가슴 쥐고 헤매이는자
모두다 억울한 무산자대중
끓주리며 찬바람에 시달리노나
4. 무산대중 쓰라린 가슴속에는
혁명의 기세가 가득찼고나
산림속에 눈 깔고 누워 잘 때에
끓는 피는 더욱더 솟아오른다
5. 싸우자 싸우자 동무들이여
한시라도 지체말고 어서 싸우자
동무들아 잊지 말자 우리 싸움길
어서빨리 목적지에 도달들 하자
6. 착취에 시달리던 무산대중아
우리 피땀 빨아먹던 지주 자본가
모조리 목을 잘라 불속에 넣고
우리의 붉은 주권 건설을 하자

S01.str id=2943

인민주권가

1. 인민주권을 세우자 붉은 주권을 세우자
로동자 농민의 피값에 인민주권을 세우자
(후렴)

공산사회를 만들려면 혁명투쟁에 힘쓰자
세계혁명을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싸우자

2. 로동자들의 공장엔 망치소리 울리고

농민대중의 발에는 트랙포르소리 울리리
(후렴)

3. 계획경제실시에 로동자 농민들 나서고
사회주의국방엔 혁명군대가 서리라
(후렴)
4. 만세만세 부르며 혁명승리를 앞당기자
인민주권을 위하여 마지막 끝까지 싸우자
(후렴)

S01.str id=2944

즐거운 무도곡

1. 자유와 평등을 얻은 기념날은 돌아와
동무들은 구락부에 모여 무도회를 열었다
로동자 좋아서 이리저리 뛰는데
농민은 기뻐서 어찌할줄 모른다
2. 모여든 동무들중엔 음악가도 있어
군악소리 품파라품파라 천지를 진동해
혁명가곡조는 붉은 세계 펼치며
병사의 칼춤은 우쭈우쭈 나온다
3. 흥분된 동무들중엔 무용가도 있어
흥겨운 무도곡에 맞춰 덩실덩실 춤춘다
남녀의 어깨춤도 으쓱으쓱 나오고
어린이춤들도 동실동실 나온다
4. 이렇듯 즐거운 날이 그 언제 있었나
행복한 새 사회에 웃음꽃이 피었다
로동자 농민은 한데 뭉쳐 춤추고
어린이는 이 꽃속에 길이길이 놀아라

반일혁명가

1. 붉은 피로 물들인 조국산천에
반일혁명 높은 기세 세계에 떨쳐
적의 총칼 빼앗아 무장을 하고
백색테로 짓부시며 돌진해가자
2. 쇠망치와 호미 낫을 모두다 들고
일제주구 《민생단》과 군벌들까지
하나도 용서 못할 살인귀들을
영원히 매장하는 판가리싸움
3. 포연탄우 막 퍼붓는 우리 혁명은
로농형제 혁명불길 타번짐이니
살인강도 일제놈을 모두 잡는 날
승리의 붉은기는 휘날리리라

반일병사가

1. 붉은기 날리며 일어났다
피끓는 무산대중 우리들은
번쩍거리는 총창을 만들어쥐고
원췌의 아성을 무찌른다
2. 겨울에 눈 깔고 얼었던 몸이
푸른 숲 산림을 집으로 삼고
반일병사들에게 웨치는 구호
튼튼히 단결하여 나가싸우자
3. 시간을 아끼며 싸움을 하자

인민의 정권을 건립하러
이 한몸 죽더라도 민족을 위해
물불을 헤쳐가며 힘껏 싸우자

S01.str id=2947

불평등가(혁명가)

1. 혁명을 찾아서 암초많은 바다로
감옥살이 두려우랴 혁명대렬 앞으로
어느 곳의 감옥이 내 집처럼 되든지
단두대의 이슬돼도 겁날것 없다
2. 적은 무리 잘살고 많은 대중 못사는
자본주의노예의 그 설음이 원통해
일어나라 로동자 농민과 녀성들
불평등한 자본사회 때려부시자

S01.str id=2948

혁명의 길

1. 흐르는 내물은 굽이쳐 내리고
혁명의 길에는 곡절도 많고나
끓주려 죽은 자 총칼에 상한 자
물노라 동무여 그 얼마이던가
(후렴)
때리어라 부시여라 제국주의 그놈들을
무찌르고 건설하자 조선인민의 새 정부를
2. 울창한 산림과 눈덮인 벌판은
우리의 피땀에 젖어있는데
플 깔고 눈 깔고 앉아서 잘 때에

동지들 생각에 가슴은 불탄다
(후렴)

3. 나날이 들리는 일제의 총소리
우리의 앞길을 재촉해주나니
떠 줄라 꼭 매고 행진해 나갈 때
끓는 피 가슴에 넘쳐서 흐른다
(후렴)

4. 자유를 위하는 우리 동무들
걸어온 걸음이 많다고 말아라
승리와 실패를 거울 삼아서
최후의 돌격에 꼭같이 내닫자
(후렴)

S01.str id=2949

혁명군이 되었다

1. 우리 가슴 불는 불로 낡은 사회 태우고
팔다리에 흘린 피로 새 역사를 써놓자
2. 결사전을 하려고 우리 오늘 일어나
몸과 마음 단련하여 혁명군이 되었다
3. 장엄하게 동터오는 새 세상의 붉은 빛
원썩들은 넋을 잃고 가을풀잎 되리라

S01.str id=10940

일어나라 무산대중

1. 혈벗고 굶주리는 무산대중아
무장 들고 싸우는 동무들아

제국주의 매국역적 한데 어울려
혁명기세 막으려고 발광을 한다

2. 압박과 착취 받는 무산대중아
일어나라 무장 들고 나가 싸우라
우리들은 모두 뭉쳐 힘을 합하여
자산계급통치를 때려부시자
3. 헐벗고 굶주리는 무산대중아
우리들의 영용한 유격전으로
강도 일제 썩은 통치 때려부시고
조선인민혁명정부 건설해가자

S01.str id=2950

무산자의 노래

1. 오막살이 랭돌방에 주저앉아서
주린 창자 부둥켜안고 목이 붓도록
부르짖는 말 아 쌀이 없고나
2. 고대광실 높은 집에 편히 앉아서
금의옥식 진탕치면서 기름 지운 살
그것이 모두 아 우리 피로다
3. 불평등한 자본사회 때려부시고
자유평등 공산사회를 건설하고서
잘들 삼시다 아 무산대중아

S01.str id=2951

가난한자의 노래

1. 없는 몸은 언제든지 죽은 몸이냐

이내 몸은 언제든지 없는 몸이나
불쌍한 우리 형제 전쟁에 가서
있는 놈들 위하여 피를 흘렸다
(후렴)
아하 뼈가 저리다
언제면 이 원썩들 갓아줄소나

2. 거처없이 떠다니는 우리 형제들
혈벗고 굶주리며 헤매고있다
갖은 고생 겪어오던 우리 부모는
있는 놈들때문에 굶어죽었다
(후렴)
아하 뼈가 저리다
언제면 이 원썩들 갓아줄소나

3. 금수강산 짓밟은자 어느 놈이나
우리 자유 빼앗은자 어느 놈이나
일제놈들 주구놈들 있는 놈들이
우리들을 가난속에 몰아넣었다
(후렴)
산천초목도 무장하여라
돌맹인들 어떻게 가만 있으랴

4. 우리들은 거처없이 헤매이지만
한데 뭉쳐 단결할 힘 태산과 같다
붉은 기발아래로 어서 모여라
우리들은 죽더라도 나가 싸우자
(후렴)
산천초목도 무장하여라
돌맹인들 어떻게 가만 있으랴

5. 광부들은 팽이라도 메고 나오고
농민들은 호미라도 메고 나오라
부녀들은 식도라도 들고 나오고
나무꾼들 도끼라도 메고 나오라

(후렴)

산천초목도 무장하여라

돌맹인들 어떻게 가만 있으랴

S01.str id=2952

붉은 봄 돌아왔다

1. 칼바람 추운 겨울 물러갈 때에
꽃 피워줄 붉은 바람 일어났도다
2.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지구우에
륙대주와 오대양은 붉어지노니
3. 꽃을 찾는 봉접들은 나래를 펴고
하루속히 꽃 피기를 재촉하노나
4. 꽃동산을 몽개려는 벌레 없애고
모두 함께 춤을 추자 넓은 동산에

S01.str id=2953

송 별 가

1. 금풍은 소슬하여 나무잎 지는데
이 동리 무산청년 떠나가노나
가는 동무 남는 동무 주고 받는 말
언제든지 무산혁명 잊지를 말자
2. 두만강을 건너가는 가난한 겨레
놈들의 채찍에 내몰려가는데
피 끓는 혁명자인 우리 동무는
붉은 씨를 뿌리려고 떠나가노나

3. 가는 동무 남는 동무 크게 웨쳐라
 압박 받고 착취 받던 로농대중이
 공장에서 농장에서 저 하늘높이
 붉은 기발 휘날릴 때 다시 만나자

S01.str id=2954

동무야 모여라

1. 모여라 동무야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동무들
 붉은기앞으로 모여오라 모두다 힘을 합해
 내몰자 없애자 일제놈을 우리의 손으로
2. 누구나 나오라 일제와 개떼를 미워하는 동포들
 전 민족해방 위한 반일전에 모두다 모여오라
 내몰자 없애자 일제놈을 우리의 손으로

S01.str id=2955

민족해방가

1. 조중량국 민중아 압박받는 민족아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2. 살인강도 일제는 조선과 만주를 먹었다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3. 일제놈들은 총칼로 조중민족 해치니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4. 매국역적 무리들은 나라와 민족 팔았다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5. 간악한 개떼무리 나라와 민족 망치니

-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6. 망국노예 면하며 자유권리 찾으려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7. 전 민족이 일어나 해방전선에 나가자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8. 민족해방 반일전을 전 세계가 돕는다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9. 조중민족 련합으로 반일전을 강화하자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10. 민족해방기발을 높이 날리며 나가자
민족해방을 위하여 모두다 뭉쳐싸우자

S01.str id=2956

모두다 반일전으로

1. 장하고도 장하다 넓은 산야에
혁명은 갈수록 높아만 가고
모진 싸움 곳곳마다 시작되어서
반일전에 죽는자는 일제놈이다
2. 간곳마다 쓰러지는 제국주의는
허둥지둥 몰키여 계걸음치며
인민탄압 학살에 날뛰다 해도
일어나는 혁명기세 막지 못한다
3. 혁명앞엔 제국주의 보잘것 없다
가소롭다 간악한 일제놈들아
세계혁명 고조를 네가 아느냐
일제놈아 하루바삐 항복하여라

4. 조중민족 연합으로 총검을 잡고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할 때에
독사같은 일제놈은 정신없고서
두어깨를 처뜨리고 막 쓰러진다

S01.str id=2957

계급전가

1. 나오라 계급전은 시작되었다
철 모르는 아이까지 모두 나오라
늙은이도 손목 잡고 막대 짚고서
판가리싸움터로 뛰어나오라
2. 공장문을 깨뜨리고 한데 뭉치여
자본가의 황금탑을 부시여내자
무산계급 해방하는 싸움터에로
통쾌하게 부시면서 달려나오라
3. 놀고먹는 지주놈을 없애버리고
있는 무장 다 가지고 싸움터에로
낮이나 곡괭이를 둘러메고서
토지분배하는 곳에 뛰어나오라
4. 주검터로 끌려가는 병사대중들
장관놈들 총살하고 우리 편으로
무산계급 리익을 굳게 지키며
무산정권건립에 나서 싸우자
5. 무산자의 옹호와 지지밑에서
위엄있게 나온다 무산정권은
혁명군대 악악하는 돌격소리에
자본가의 아성은 무너지노나

S01.str id=2958

무도곡

1. 세계경제공황으로 자본주의공업 파산
농촌경제재난은 나날이 더욱 심하다
2. 제국주의주구인 지주 자본가놈들은
가혹하게 로농군중을 착취 압박하노나
3. 살지도 죽지도 못하는 생지옥에 빠져서
우리는 피땀 흘려 뼈들만 남았다
4. 싸워야만 되겠다고 혁명투쟁 일으키니
어느새 대승리로 전 강토를 흔든다
5. 힘껏 싸워라 동무들아 혁명기세 드높다
벌벌 떠는 제국주의 마지막 발버둥친다
6. 물오리를 자래우면 최후에는 내빼고
미친 개를 안잡으면 결국에는 살인한다
7. 대내에 숨은 반동무리 반혁명책동을 하다가
혁명세력 높아가니 킁킁 짓으며 달아난다
8. 모이여라 뭉치여라 등 시리고 배 고프자
온갖 무장 다 둘러메고 싸움터로 나오라
9. 때리어라 부시여라 제국주의매국적을
우리 피땀 빨아먹던 그놈들을 짓부셔라
10. 적발하자 몰아내자 개량주의 파쟁분자
《민생단》개떼들을 모조리 소멸하자

모두다 나서자

1. 압박받는 민중들이 기억하느냐
영용한 유격전이 시작된후에
날마다 벌어지는 결사적싸움
강도 일제 타도하는 통쾌한 싸움
2. 민중들이 각성하라 강도 일제는
륙해공군 파견하여 혁명진압에
별의별 음모책동 학살 다하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탄압해
3. 일제놈의 야만통치 반대하여
병사들과 자위병들 병변하여라
원쑤들의 폭압에 굴하지 말고
인민혁명 반일전에 달려나오라
4. 악독한 일본놈의 음모책동은
아편과 종교 도박 선전을 하여
민중의 반일열을 마취하노나
하루속히 깨뜨리자 놈들의 통치
5. 로동자와 농민들을 마구 끌어들여
군용철도 길닥이에 미쳐 날뛰며
반일혁명진압과 전쟁준비에
정신없이 날뛰면서 발악하노나
6. 착취와 억압 받는 무산대중아
하루속히 단결하여 파업을 하자
임금인상 대우개선 시간단축에
모두다 나서자 유격전으로
7. 나라삼킨 일제놈의 주구된 놈들
《민생단》과 파쟁분자 개떼놈들의
《한인자치》《집단부락》음모정책을

대중에게 폭로하여 반대케 하자

8. 반일전에 몽쳐나선 무산대중들
살인방화 략탈로 전업을 삼는
놈들의 통치를 전복하고서
인민의 혁명정부 건립을 하자

S01.str id=2960

통일전선가

1. 착취받고 억압받는 조선민족아
항일의 전선에 달려나오라
다달았네 다달았네 우리 나라에
조국의 광복시기 다달았네
(후렴)
풍운같이 일어나자 모든 일터에서
달려가자 통일전선 한마당으로
2. 병사는 칼 빼들라 선봉전에서
로소도 소원대로 총 동원하라
원썩들을 쳐없애는 최후결전에
한마음 한소리로 모여들어라
(후렴)
3. 《소화공전》황금탑에 폭탄 던지고
군벌재벌 소굴에 불을 지르자
조선동포 학살하는 강도놈들을
단두대에 목을 잘라 복수를 하자
(후렴)
4. 개선문에 자유종을 높이 올리고
삼천리에 붉은기를 펄펄 날릴제
수십년을 짓밟히던 삼천리강산
우리 조선 락원으로 어서 만들자

병사의 무예

1. 일어나라 압박받는 조선민족아
 빼앗긴 집과 밭을 도로 찾으려
 망국노예 죄사슬을 끊어버리고
 용감하게 반일전에 뛰어나오라
2. 우리들은 혁명로선 높이 받들고
 강철같은 반일전선 튼튼히 맺어
 일제놈의 악독한 탄압정책과
 매국역적 개떼들을 때려부시자
3. 썩어가는 제국주의 최후의 발악
 여지없는 착취 압박 강도락탈에
 피흘리며 신음하는 조선민족아
 총과 칼을 틀어쥐고 나가싸우자
4. 원썩들의 잔인한 최후발악은
 전 민족의 반일열을 날로 높이고
 사정없이 감행하는 학살정책은
 우리들의 끊는 피를 더 끊게 한다
5. 가혹한 로동에 피가 말라도
 혈벗음과 굶주림을 면치 못하고
 내 집 잃고 결방살이 면치 못해도
 일제놈의 탄압에 겁내지 말라
6. 조선민족 튼튼히 단합을 하고
 일어나는 민족해방 반일전쟁에
 악악하며 돌격하는 씩씩한 투사
 곳곳에서 우렁찬 승리의 고향

7. 나날이 높아가는 만일의 전쟁
멀지 않은 앞날에 승리탑 쌓고
우리들의 자유행복 누리게 하는
인민정권 위하여 나가싸우자

S01.str id=2962

민족해방가

1. 싸워라 노동자 한테 뭉쳐라
괘이와 망치를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후렴)
일제와 주구놈들 때려부시고
인민의 손으로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자
2. 싸워라 농민들 한테 뭉쳐라
도끼와 낫을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후렴)
3. 싸워라 병사들 한테 뭉쳐라
인민과 튼튼히 단결하여 싸움판으로
(후렴)
4. 싸워라 학생들 한테 뭉쳐라
노예교육을 받지 말고 싸움판으로
(후렴)
5. 싸워라 부녀들 한테 뭉쳐라
멀시와 천대를 받지 말고 싸움판으로
(후렴)
6. 싸워라 전 민족 한테 뭉쳐라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려 싸움판으로
(후렴)

나오라 혁명전에

1. 혈벗은 자 굶주린 자 어느 누구나
착취압박 못이기어 몽친 로력자
모두 함께 일어나서 살길 찾으려
악전고투 무릅쓰고 나가싸우자
(후렴)
나오라 혁명전에 부서라 자본사회를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대오를 지어
용감하게 싸우자 최후결전에
무산계급 독재정권 건설해가자
2. 제국주의렬강들이 만든 포탄은
무산계급 진영우에 막 쏟아진다
용감하게 나서라 혁명투쟁에
원쑤를 무찌르려 나가싸우자
(후렴)
3. 마지막 기를 쓰고 미쳐 날뛰며
제아무리 악착같이 대든다 해도
무산대중 몽친 힘과 날랜 싸움에
사납던 제놈들도 끝을 마치리
(후렴)
4. 넓은 들이 밝아왔다 리전을 닦자
붉은 기발 휘날리며 나아들 가자
인민의 혁명정권 건립하고서
평화세계 자유락원 건설해가자
(후렴)

나가자 싸우자

1. 동아패권 잡으려고 갖은 흉계로
조선을 강점한 원수 왜적들
살륙전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향방없이 날뛰며 서둘러댄다
(후렴)
나가자 싸우자 마지막승리는
우리것이 되도록 나가싸우자
2. 뼈와 살을 굶어먹는 압박밑에서
망국노예 설은 생활 어찌 견딜가
일어나라 사랑하는 조선동포야
생사의 판가리싸움 눈앞에 있다
(후렴)
3. 반일민족통일전선 튼튼히 맺고
로동자와 농민들과 각계각층이
민족해방 부르면서 일어났으니
네놈들은 씨도 없이 멸망하리라
(후렴)
4. 용감하게 총을 들고 나선 동무들
우리들은 혁명전의 선봉대로다
강도무리 쳐부시고 나라를 찾아
부강한 우리 조국 꾸려나가자
(후렴)

S01.str id=2965

무산혁명가

1. 굳게 뭉친 로동자의 붉은 목소리
은 세상 방방곡곡 울려퍼질 때

경관놈들 그들을 쏘아댔지만
거리우의 붉은 피는 우리의 교훈
(후렴)

전 세계 무산대중들 모두다 일어나서
붉은 기발을 손에 잡고 뭉친 기세로
용감하게 나아가자 무산혁명에
새 사회를 전취할 날 눈앞에 있다

2. 기한에서 헤메이는 무산자들을
자본가는 마음대로 부러먹잔다
우리들의 목숨이 끊어지기전
그 누가 제놈들의 종이 될소냐
(후렴)

3. 오대양을 붉은피로 고루 적시고
륙대주 큰 대륙을 붉게 하여라
우리 피를 빨아먹는 자본가들을
세상에서 그림자도 없애버리자
(후렴)

S01.str id=2966

빨찌산추도가

1. 가슴 쥐고 나무밑에 쓰러졌다 혁명군
가슴에서 흐르는 피 푸른 들을 적신다
2. 머나멀리 고향산천에 부모형제 다 버리고
홀로 선 나무밑에 한을 품고 쓰러졌다
3. 산에 나는 까마귀야 시체보고 울지 말아
몸은 비록 죽었으나 혁명정신 살아있다

S01.str id=2967

추 도 가

1. 목이 말라 물 찾으려 헤매이다가
악독한 원쑤에게 붙잡히어서
혹독한 고문을 이겨내다가
억울하게 이내 몸은 죽게 되었다
2. 일제놈들 곳곳마다 만든 감옥은
두말없이 우리들의 도살대로다
사지가 산산이 찢긴다 한들
가슴속에 지닌 비밀 루설할소냐
3. 원쑤의 칼날에 찢리운 투사
온몸을 붉은피로 물들이었다
원쑤에게 체포된 투사의 몸은
대중앞에 붉은피를 뿌리어준다
4. 더운 피로 물들인 붉은 기발아
이내 몸의 붉은피로 더욱 붉어라
원쑤놈이 제아무리 칼부림해도
혁명앞에 다진 맹세 변함있으라
5. 사랑하는 동무들아 잊지 말아라
죽어가는 이내 몸을 떨쳐메고서
파옥하고 떨쳐나와 투쟁하여라
같이 싸운 이내 몸의 원쑤 갇아라
6. 고문이 끝난 뒤에 사형장으로
머리높이 쳐들고서 걸어나간다
단두대에 올라선 불굴의 투사
얼굴에 희색 띠고 부르짖는다
7. 동지들아 몸바쳐 투쟁하여라
일제원쑤 학살을 없애버리자
원쑤의 총소리 한번 나더니

주먹 쥐고 웨치는 그의 목소리

8. 이내 몸은 영원히 떠나가지만
동지들아 락심말고 투쟁하여라
번번이 웨치는 그의 구호는
우리들의 혁명열을 끓게만 한다
9. 이내 몸은 원한 품고 사라지지만
강철같은 공산주의 무너질소나
말끝에 총소리가 다시 나더니
또 한번 손 내밀고 쓰러지노나
10. 수많은 동지들은 그 모습 보고
원한의 눈물을 흘린다마는
동지들아 시체보고 울지 말아라
대를 이어 복수할자 아직도 많다
11. 피끓는 군중들아 각성하여라
피압박대중들아 꺾기하여라
우리들을 학살하는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평등사회 건설해가자

S01.str id=2968

유격대추도가

1. 의를 위해 분투하고 의를 위해 죽는것은
사람다운 직분이요 사람다운 모범이다
부모처자 다 버리고 모든 간고 무릅쓰며
혁명전에 몸을 바쳐 끝날까지 싸웠도다
2. 활발하다 반일전사 용감하다 민족영웅
철퇴같은 주먹으로 적의 진영 쳐부시리
혁명앞에 너와 나와 굳은 맹세 다졌더니
분하고나 적의 총탄 끈은 나무 넘어졌다

3. 험한 산을 넘어가고 산림속을 지날 때에
동무들이 밟던 자취 은은하게 들려온다
슬피 우는 두견새야 네 목소리 비참하여
흘러가는 시내물도 네 소리에 목이 멘다
4. 렬사들의 뼈와 살은 옥토속에 묻혔으나
혁명정신 살아있고 일편단심 남아있다
분을 참아 원쑤같고 자유기발 날릴 때에
돌아가신 용사들의 령혼들도 춤을 추라

S01.str id=2969

옥 중 투쟁 가

1. 세찬 바람 몰아치는 광막한 들에
붉은기에 폭탄 차고 싸우던 몸이
감옥에 갇힌 뒤에 몸은 여웨도
혁명으로 끓는 피야 어찌 식으랴
2. 간수놈의 불멘 소리 높아만 가고
때마다 먹는 밥은 수수밥이라
날마다 새우잠에 밤을 새우니
싸우는 여러 동지 안녕하신가
3. 가혹한 고문끝에 부당한 판결
일제놈들 악독한 살인귀로다
금전에 눈 어둡고 행세로 사는
일제의 주구놈들 살인귀로다
4. 네놈들은 짐승같은 강도놈이나
우리는 나라찾는 혁명군이다
정의의 총칼은 용서없으니
어느 누가 죄인인가 판결하리라
5. 팔다리에 철쇄 차고 자유 잃은 몸

네놈들의 호령에 굴복할소냐
오늘 비록 놈들에게 유린 당하나
래일엔 우리들이 사회의 주인

6. 일제놈과 주구놈들 안심말아라
넓은 들에 붉은기가 펄펄 날리고
수많은 반일대중 돌격소리에
열린다 감옥문이 자유의 길로

S01.str id=2970

어머니 리별

1. 이몸은 혁명의 길을 찾아서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 부탁컨대 나의 생각 잊어주세요
어머니 부탁컨대 나의 생각 잊어주세요
2. 어머니 품속을 떠나는 이몸은 무산자 위하여
굳세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싸우려 합니다
굳세게 먹은 마음 변치 않고 싸우려 합니다
3. 아버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내 돌아 올 때까지
무산자정권인 우리 나라 새로 설 그때면
어머니품속을 떠난 이몸 돌아오렵니다

S01.str id=2971

망명자의 노래

1. 혁명의 기세는 나날이 높아가고
백색의 학살도 나날이 심하다
감옥에 갇힌 자 총칼에 죽은 자
알려라 동무들 그 몇몇이더냐

(후렴)

하루속히 깨뜨리자 부르조아사회를
깨뜨리고 건설하자 공산주의사회를

2. 여름의 숲속과 겨울의 땅굴은
모두다 우리를 감춰준 곳이다
풀 깔고 눈 깔고 누워 잘 때에
온몸의 더운 피는 뚫어넘친다
(후렴)
3. 주린 배 띠 졸라 다시금 매고
힘차게 발걸음 내어디딜 때
즐거움 피로움 가릴새없이
내 오직 바람은 자유와 평등
(후렴)
4. 혁명을 위하여 피끓는 동무들
놈들의 학살에 주저치 말아라
눈보라 아무리 세차게 날려도
봄바람 불며는 붉은 꽃 피리라
(후렴)

S01.str id=2972

백색테로반대가

1. 헐벗고 주린 투사들은
철창속에 갇혀있다
야수같은 악마놈들은
끓는 피가 식는가를 보려고 한다
(후렴)
동무들아 두려워말라
백색테로에 단을 내리며
청년부녀야 모두 싸우자

무산계급 우리들은 굴치 않는다

2. 불길로 이는 혁명운동은
전 세계 룩대주를 뒤흔든다
우리의 피땀 빨던 사회는
붉은 기발아래에 이슬되리라
(후렴)

S01.str id=2973

요 일 가

1. 일요일이라 일 삼고 박해오던
일본놈들을 일본놈들을
한바다 깊은 물에 막 쓸어넣자 막 쓸어넣자
2. 월요일이라 월색아래 행진하는
혁명군대는 혁명군대는
전 세계 무산계급 선봉대이다 선봉대이다
3. 화요일이라 화차를 타고 가던
왜놈군대는 왜놈군대는
혁명군의 습격에 막 녹아난다 막 녹아난다
4. 수요일이라 수없이 일어나는
혁명투사는 혁명투사는
조선독립건설에 힘을 쓰노나 힘을 쓰노나
5. 목요일이라 목 빼들고 발악하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는
춘삼월에 눈녹듯이 막 쓰러진다 막 쓰러진다
6. 금요일이라 금은보화 가진 놈들
족쳐버리고 족쳐버리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가자 건설해가자

7. 토요일이라 토지 뺏아 호사하던
지주놈들을 지주놈들을
이 세상에 그림자도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S01.str id=2974

자 유 가

1.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버려
2. 억눌린 아이들아 어서 자라서
우리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김장군싸움법을 어서빨리 배워서
악독한 원썩들을 때려부시자
3. 차라리 다 죽어서 자유혼돼도
이내 몸이 종노릇 할줄 아느냐
자유권 없이는 살아도 죽은것이니
목숨은 버리어도 자유 못버려

S01.str id=2975

불 평 등 가

1. 가련하고 불쌍한 세계무산자
모두다 싸우자 유산계급과
우리 피땀 빨아먹는 그 악마를
그대로 두고서는 살지 못한다
2. 날마다 파내는 금, 은, 동, 철은

광주놈의 금고로 다 들어가고
해마다 피땀 흘려 지은 곡식은
지주놈의 곡창을 채워주누나

3. 라디오와 축음기소리 들으며
흰밥과 고기국에 살진 놈들은
그것이 뉘덕인지 알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들을 압박하노나
4. 헐벗고 굶주린자 누구나
돈 없고 땅 없는 무산자인데
자본가와 지주놈의 이익을 위해
쟁탈전에 몰아내어 모두 죽인다
5. 바다에 오고가는 저 군함들과
요새지에 걸어놓은 저 대포들은
로동자의 손으로 만들었건만
도리어 우리를 쏘아죽인다
6. 사층오층 즐비하게 지은 양육과
모든 설비 화려하게 갖춘 병원은
사람의 건강위해 세웠다지만
돈 없다고 입원도 거절하노나
7. 자라나는 아동을 교육시키려
애쓰고 건설한 모든 학교들
무산자의 손으로 만들었건만
월사금을 못냈다고 출학시킨다
8. 자본가와 지주놈들 옹호를 하고
무산자와 빈농을 착취만 하는
악독한 파썸제도 만들어놓고
제놈들 마음대로 막 뺏아간다
9. 자유로운 새 세상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고 나서는 혁명가들을

《위험한 분자》라고 붙잡아다가
철창속에 몰아넣고 압박을 한다

10. 줄 선 양복 가죽구두 잘 차린 놈은
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보고
로동하는 천인이라 멸시를 하니
참으로 눈뜨고 볼수가 없다
11. 전 세계무산자는 단합하여서
타도하자 군벌과 제국주의를
박멸하자 불평등과 모든 착취를
그대로 두고서는 살지 못한다
12. 고통 많고 모순 많은 룩대주에다
무산독재 혁명정권 모두 세우고
붉은기 하늘높이 휘날리면서
인류가 평등하게 살아들 보자
13. 하루바삐 나오라 무산대중아
유산자를 박멸하는 혁명전선에
용감하게 모두 싸워 승전한후에
만세만세 웨치면서 다같이 살자

S01.str id=2976

부시자 자본사회

1. 자본의 사회제도를 관찰한다면
만가지 큰 모순이 여기 다 있다
평등 행복 구하려는 시대의 마음
이런 모순 그대로 못참으리라
2. 자동차 으릉으릉 다니는 길은
로동자 농민들이 닦은 길인데
길담을 때 놀던 놈들 차타고 가니

이내 몸은 길땀이 통분도 하다

3. 주린 농민 피땀흘려 벼농사해도
일생에 된조밥도 차례 못지고
농사일도 벼이름도 모르는 놈들
흰 쌀밥에 살진 꼴 보기도 싫다
4. 양잠에 애 태우던 농민 이몸은
명주옷 한꺼풀도 못해입는데
누에라는 이름조차 모르는 놈들
통비단에 싸인 꼴 패썹도 하다
5. 자본가놈들은 사오층에서
서양료리 배불리 먹고 낮잠 자는데
대문앞에 밥 한술 애걸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난 사람도 많다
6. 잘사는 집 고간에선 쌀이 썩어도
온 동네 사람들은 굶어 헤맨다
뒤집아이 밥 달라고 우는 소리에
지나가는 내 가슴 쓰라리고나
7. 적십자 큰 병원을 짓던 로동자
허공에서 떨어져서 병신되여도
돈이 없어 입원도 거절 당하니
병신되여 억울하게 죽어가누나
8. 종일토록 뼈빠지게 일하던 전공
오막살이 랑돌방에 돌아와보니
전기불은 고사하고 등불도 없어
캄캄한데 밥 먹자니 울화가 난다
9. 《치안유지》 극악한 법 만든 놈들을
모두다 철망치로 때려부시자
저희 혼자 잘살려는 악마놈들은
사무라이 제국주의 그놈들이다

10. 무리한 착취압박 견디다못해
싸우는 혁명자가 무슨 죄이나
반항도 사회가 시킨것인데
검사판사 제 잘 낳다 짓어대누나
11. 청년아 청년아 무산청년아
웨이며 폭동파업 일으키여라
반일전선 척후대에 나선 이몸은
혁명운동 뜨거운 피 절절 끓는다
12. 무산자 단결하고 투쟁하여서
불평등한 자본사회 때려부시자
천하만국 동무들은 한길로 오라
제국주의아성을 부셔버리자

S01.str id=2977

메 데 가

1. 들어라 만국의 노동자
천지를 진동하는 메데를
시위자들 맞추는 발걸음소리
메데를 고하는 우렁찬 소리
2. 공장문을 모조리 닫아버리고
모두다 투쟁에 달려나오라
온 하루동안을 파업함은
사회의 모순을 깨뜨림이다
3. 지나긴 착취에 시달려오던
무산자대중아 쫓기하여라
오늘 하루 온 종일 스물네시간
가렬한 계급전이 시작되었다
4. 일어나라 노동자들 분투하여라

빼앗겨버렸던 모든 생산물
정의의 손으로 도로들 찾자
놈들의 세력이 그 무엇이나

5. 우리들의 선두에 휘날리는 기
드높이 달려있는 우리 붉은기
지켜라 메테의 로동자
사수하라 메테의 로동자

S01.str id=2978

일어나라 만국의 로동자

1. 아하 혁명은 가까와온다
오늘래일 시기는 박두했다
일어나라 만국의 로동자야
깨달아라 소작인들 동맹을 하자
2. 놈들이 쓰고 사는 벽돌집들도
놈들이 먹고 입는 금의옥식도
비행기와 자동차 온갖 상품도
모두다 우리들의 피와 땀이다
3. 소작인은 제대로 잠도 못자고
혈벗고 굶주려 병에 걸려도
죽을 힘을 다하여 지은 곡식은
모두다 놈들이 빼앗아간다
4. 가혹한 착취와 강제압박에
우리는 도저히 살수 없다고
소리높이 웨치는 만국로동자
굳게 뭉쳐 용감하게 싸움판으로
5. 맨 먼저 감옥을 때려부시고
전신전화통신망 끊어친 다음

철도의 수송선 파괴하고서
도시와 요새를 점령들 하자

S01.str id=2979

로 동 자 가

1. 뼈만 남은 팔다리를 훔친 겉고서
춘하추동 사시절을 로동하여도
기한에 떨고있는 우리 로동자
불평등한 자본사회 마사버리자
(후렴)
우리의 고향을 짜내는 악마같은 부르쥬아
빈대, 벼룩, 모기처럼 없애버리며
수억만 로동자야 단결하여라
계급혁명 승리할 날 눈앞에 왔다
2. 일하는 시간은 늘어만 가고
차례지는 임금은 적어만 진다
심한 로동 적은 임금 모순의 사회
불평등한 자본사회 때려부시자
(후렴)
3. 명절이 돌아오면 어린 아이들
새옷과 맛난 음식 어서 달라고
가슴이 미어지게 울어만 댄다
불평등한 자본사회 때려부시자
(후렴)

S01.str id=2980

5 월 행 진 곡

1. 착취자에 억눌렸던 우리 로동자

우리들이 다시 살 날 오늘이로다
철퇴같은 두주먹에 힘을 모두어
우리들을 압박하던 원수를 치자
(후렴)

올려라 동등 혁명군동무들아 이날에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몽처들 가자
우리 피땀 빨아먹는 자본가들을
세상에서 그림자도 없애버리자

2. 일어나라 착취받는 로력대중아
우리 손에 쥐여진 쇠망치 들고
강철을 두드리던 그 솜씨들로
자본가의 착취제도 때려부시자
(후렴)

3. 단결의 위력으로 원수 없애고
새 사회 자유세상 건설한 후에
온 세계 로동자와 기념들 하며
우리 함께 이 명절을 즐겁게 맞자
(후렴)

S01.str id=2981

농 민 혁 명 가

1. 선들바람 불어오는 가을만 되면
피땀 흘려 지어놓은 모든 농작물
지주와 자본가에게 다 빼앗기니
혁명의 길 찾기에 피가 땀니다
2. 혁명위해 무장 들고 모두 일어나
번개같이 달려가는 유격대앞에
개떼처럼 쓸어드는 일제놈들은
붉은이 녹아나듯 쓰러집니다

3. 전 세계의 로농대중 단합하여서
혁명전에 용감하게 뛰어나오라
일제와 지주놈들 청산하고서
가난한 농민에게 나눠줍시다

S01.str id=2982

녀성의 노래

1. 만리장천 반공중에 비행기 뜨고
오대양 한복판에 군함이 뗏다
륙대주에 울리는 대포소리에
오백년을 자던 잠을 속히 깨여라
2. 집안의 감옥같은 골방에 갇혀
세상형편 구경못한 우리 녀성들
어서빨리 낡은 사회 때려부시고
자유평등 활동무대 모두다 찾자

S01.str id=2983

응원가

1. 무쇠팔뚝 돌주먹 높이 들어라
우리앞의 모든 장애 때려부시자
대승리의 월계관이 누가 싫으랴
두말하면 잔말되지 우리것이다
(후렴)
우뢰와 같이 우루루루
번개와 같이 불이 번쩍
용감하게 싸워이겨 만세만세 만만세
만세만세 만만세
2. 혁명의 붉은 기발 높이 들어라

제국주의강도무리 때려부시자
전 세계 무산대중 하나로 뭉쳐
공산주의 최후승리 쟁취하여라
(후렴)

S01.str id=2984

소년군가

장하고도 장하다 우리 소년군
새 사회의 주인공 될 우리들이다
우리들도 끓는 피를 식히지 말고
원썬놈의 낡은 사회 어서 쳐가자
씩어가는 제국주의 다 무엇이냐
말 말아라 발악하는 부르쥬아는
기를 쓰며 허덕이며 꼬꾸라지며
제놈들의 더러운 주권 유지하련다
소년군동무들 락심 말아라
자본주의 최후계단 제국주의는
제놈끼리 물고 뜯고 아우성치며
죽을 자리 찾느라고 헤매이노나

S01.str id=9879

우리는 아동단원

목에다 두른것은 붉은넥타이
등에다 짐을 지고서 훈련을 나간다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바지는 짧아서 무릎에 닿으나
등에다 짐을 지고서 탐험을 떠난다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나이는 어려서 아이지마는
굳센 마음으로 용감히 싸운다
장하다 그의 이름 아동단 아동단 아동단
세상이 모두다 칭찬한다 아동단 아동단

S01.str id=9880

아동단가

어깨동무 세동무 아동단동무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아
울망졸망 동무야 다 나오노라
골목골목 모여서 한뭉치되자
따따따따 손나팔 아동단나팔
공장에서 농촌에서 높이 부르자
끓주리고 혈뺏은 우리 동무들
두팔걸고 나와서 진을 치잔다
어린 병정 새 병정 아동단병정
우리들은 나어린 프로레타리아
나어린 동무야 모두 나오라
붉은 기발 아래서 싸워나가자

S01.str id=9881

무산자의 선봉대

1. 저기 가는 저 군대는 무슨 군대냐
무산자의 선두에 선 혁명군대다
나팔 불고 행진하는 힘찬 기세에
영버티던 놈들은 황겁해졌다
2. 간곳마다 판가리 결사전투에

기세높이 승리의 노래 부른다
발악하는 제국주의파쇼렬강은
구시월 나무잎과 다름없고나

S01.str id=2985

아 동 가

1. 제국주의 질러놓은 세계대전은
수천만의 우리 부형 내다 죽였다
길가에서 방황하는 우리 아들은
배고파 굶어죽고 얼어죽었다
(후렴)
반대하자 제국주의 개떼싸움을
전개하자 무산자의 혁명전선을
2. 제국주의《평화》란건 올가미이요
《애국》이란 사탕떡은 양재물이다
로동자의 피땀으로 총칼 만들어
우리 부형 죽일 전쟁 또 벌어졌다
(후렴)

S01.str id=2986

어린이곡

나어린 몸 혼자 두고 아버지는 철창속에
눈보라치는 이 별관에서
어머니도 영리별 어머니도 영리별
날마다 그때마다 흐르는 눈물을
이리저리 씻어가며
엄마아빠 부른다 엄마아빠 부른다
놈들의 최후발악 어찌하면 막을가

싸울 활을 만들어야
살길이 있단다 살길이 있단다

S01.str id=9884

무산청년가

N

무산청년가

1. 새 세상 동 터온다 어서 마중가자
무산청년 우리모두 앞서나가자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나가자
(후렴)
우리는 무산청년이니 무산청년답게
우리는 근로대중의 청년전위대
2. 이마에 땀 흘리고 무쇠팔 들고
망치와 팽이 낫을 막 틀어쥐고
놈들의 낡은 사회를 용감히 무찔러나가자
(후렴)

S01.str id=9882

광명의 천지

1. 압박에 눌린 동포야 일어나 나오라
노예의 멍에 벗으려 해방의 길 찾네
노예의 멍에 벗으려 해방의 길 찾네
2. 원쑤놈 강도 왜적은 위기에 빠져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멸망의 길 찾네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멸망의 길 찾네

3. 조국을 회복할 그날이 오늘이로다
전 민족 반일전에 모두다 몽치자
전 민족 반일전에 모두다 몽치자
4. 이천만의 조선동포 튼튼히 단합해
우리의 원쑤 일본놈을 모조리 부셔라
우리의 원쑤 일본놈을 모조리 부셔라
5. 이천만 조선동포야 나가자 앞으로
암흑의 세상 벗어나서 광명의 천지로
암흑의 세상 벗어나서 광명의 천지로

S01.str id=2987

나도 자라

야야 아느냐 너의 아버지는
무더운 여름과 엄동설한에
철창생활 하신지 몇몇해인줄
잊지 말아 원쑤가 어느놈인가를
최후로 발악하는 백색테로들
공장과 농촌에 달려들었다
고문에 병든 몸이 쇠사슬 차고
원통히 죽었으니 어찌 잊으랴
어머니 어머니 녀려마세요
나도 자라 원쑤를 갚으오리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혁명에 흘린 피 빛내오리다

S01.str id=9885

해 방 가

1. 이천만동포야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총을 메고 칼을 잡아라
잃었던 우리 자유 우리 권리를
원쑤의 손에서 기어이 찾자

(후렴)

자유롭고 평등한 새 사회 위하여
민족해방투쟁에 몸 바쳐 싸우자

2. 자유와 권리를 모두 빼앗긴
조선의 동포야 일어나거라
남녀의 로소를 막론하고서
민족해방 반일전에 뛰어나오라
(후렴)
3. 뚫는 피로 낡은 사회 씻어버리고
조선의 강토를 붉게 하여라
해방의 자유종을 울릴 때까지
일제놈과 주구놈들 때려부시자
(후렴)

S01.str id=2988

기 민 투 쟁 가

1. 기한에서 헤매이는 기민대중아
도시에서 농촌에서 다 일어나라
산 송장을 묶어내는 원쑤제도를
쇠망치로 곡괭이로 때려부시자
(후렴)
나가자 싸우자 굳게 뭉치여
무산정권 세우려 나가싸우자
2. 오직 한길 혁명에서 살 길을 찾자
나리님 하느님도 돕지 않는다
우리에게 감옥밥만 차례지거니

제 힘으로 새 사회를 어서 세우자
(후렴)

3. 삶을 위해 기민전이 열렸으니
자본가와 지주에게 달려들어라
적의 창고 적의 금고 헤쳐내고서
기민대중 모두다 구제를 하자
(후렴)
4. 기민투쟁 거세차게 터져나온다
쌀자루나 밥통이나 들고 나오라
자본사회 십자거리 걸인천지니
실업에서 파산에서 뛰어나오라
(후렴)
5. 천만번 죽더라도 싸워야 한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돌격전으로
자본사회 짓부시는 싸움판으로
파업과 투쟁으로 뛰어나오라
(후렴)

S01.str id=2989

무산아동가

온 세상 어린이들 서로 도움고
동반구 서반구를 한눈에 보며
자유권리 찾기 위해 기발 높이니
혁명의 불길속에 자라는 아동
혁명전에 나서라 무산어린이
붉은기아래로 모두 모여라
만천하를 둘러싼 무산어린이
모두다 용감하게 싸워나가자
착취압박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강산에서 노래부르자
혁명전에 나서라 무산어린이
붉은기아래로 모두 모여라

S01.str id=9886

반 일 투쟁 가

1. 넓은 벌판 거친 들에 불이 붙는다
일제의 밀뿌리에 불이 붙는다
그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화염은
반일혁명대중의 함성이란다
(후렴)
나가자 반일의 병사와 인민들
모두다 전선에 나가싸우자
2. 대포와 비행기 기관총들도
굳세인 단결앞에 부서져가고
일제놈의 이중 삼중 요새 성벽도
우리들의 투쟁앞에 무너지노나
(후렴)
3. 전사들이 흘리는 신성한 피는
민중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용감하게 싸우는 교함소리에
우리들의 더운 피를 더 끓게 한다
(후렴)
4. 동무들아 어서빨리 일어나거라
일어나 총을 들고 칼을 잡아라
잃었던 우리 자유 우리 권리를
우리들의 손으로 기어이 찾자
(후렴)

S01.str id=2990

끓는 피

1. 펄펄 끓는 붉은피를 가슴에 품고
악전고투 이겨나갈 전사들이여
제국주의개들과 강도놈들을
세상에서 그림자도 없애버리자
(후렴)
나가자 싸우자 로력대중아
모두다 전선에 나가싸우자
2. 우리들의 붉은 기발 나뭇기는 꽃
놈들의 아성은 무너지노나
우렁차게 웨치는 고향소리에
일제놈들 넋을 잃고 쓰러지노나
(후렴)
3. 삼천리에 붉은기가 펄펄 날리고
해방의 종소리가 울려퍼지니
승리의 대포소리 광광 나면서
압제받던 조선민족 만세 부른다
(후렴)

S01.str id=2991

6

항일혁명투쟁시기 구호문헌의 혁명시가들

백두산 제일봉
금강산 제일경
금수강산 우리 나라
왜놈치고 도로 찾자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은 단결하라

(백두산밀영)

2천만 조선동포
모두 일어나
항일전에 참가하자
토지없는 조선농민
모두 일어나
왜놈에게 빼앗긴
문전옥답 도로 찾자

(백두산밀영)

어두운 조선의 밤하늘에
장수별 떴다
장수별 등대로
모여든 수만애기별
왜놈멸망의 날
멀지 않다

(사자봉밀영)

내 고향을 떠나올 때
왜놈치고 다시 만나자던
고향마을 처녀와의 굳은 약속
잊지 말자

(사자봉밀영)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반드시 왜놈치고
다시 만나자던
어머님의 그 말씀
우리모두 잊지 말자

(사자봉밀영)

이 나라
선량한 아버지 어머니들이여
그네들의 귀여운 자식들이
현해탄을 넘어 노예살이 끌려간다
모두다 일제의 징용정책 반대하라

(사자봉밀영)

꿈결에도 못잊은
사랑하는 조국이여
내 다시 너의 품에 안겼구나
죽어도 살아도 안기고 싶은
조국의 품이여

(압록강안지구밀영)

우리모두 독립의 날
부끄럽지 않게
항일의 한초한초를
값있게 살자

(선오산밀영)

동포들이여
모두 일어나라
어둠던 이 나라에
밝은 태양 솟았다

(간백산밀영)

2천만 동포들이여
모두 일어나 나라를 해방하고
태양 받들어 자주독립국 건설하자

(간백산밀영)

이 나라의
량심있는 자산가들이여
독립의 날 나라와 민족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거든 전력하여
항일군을 도와나서라

(간백산밀영)

아름다운 우리 나라
아침해 솟는
자유조선 노래 부르자

(간백산밀영)

항일명장 김대장
백두광야 신출귀몰 축지법
천만년 빛나라!

(소연지봉밀영)

조국광복회 령수 김사령 만세!

2천만 동포들이여
모두다 조국광복회에 단합하자

(소연지봉밀영)

형제들이여
삼천리 금수강산에
해방의 서광 빛난다
우리 민족 해방과 독립 위하여
수만리 더 걸자

(소연지봉밀영)

2천만 조선동포들이여
모두다 단결하여
우리 민족 힘으로
삼천리 금수강산 광복하자

(무두봉밀영)

하루속히 강도 일제 쳐부시고
광복의 날 백두산에 오르자

(무두봉밀영)

조선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청봉숙영지)

일어나라 단결하라
전 세계 로력대중들아
자유와 해방 위하여 싸우자

(청봉숙영지)

축지법 쓰는 장수
김일성대장
조국광복 확대 위하여
국내출전

(량강도 김형직군 죽전리)

내 조국에…
김대장 모시고…
오리라

(량강도 김형직군 로탄로동자구)

나라의 독립은
김일성대장만이 한다
아름다운 내 나라를
왜놈치고 도로 찾자

(량강도 백암군 유평로동자구)

맑은 하늘가에
백두성 솟았다
그대따라 광복을 하자

(량강도 백암군 황토리)

조선독립
항일령수
김대장 만세

(량강도 대흥단군 천수로동자구)

아 조선아
백두성 탄생을 알린다

(함경북도 연사군읍)

조선독립대장
김일성대장 만년영생

(함경북도 연사군읍)

달아달아 밝은 달아
하늘중천에 뜬 밝은 달아
달속의 계수나무를
은도끼로 찍고 금도끼로 다듬어
천상에 왕궁을 짓고

항일대장 김일성
녀장수 김정숙
백두광명성
천만년 모시자

1942년

(함경북도 연사군 삼하리)

동포들이여
천출명장 김대장을
알아야 한다
김대장은 민족의 독립구성이다

(함경북도 연사군 삼포리)

2천만 민족아
백두산의 장수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함경북도 연사군 신장리)

천출명인 김일성대장
항일녀장수 김정숙
국내출현 1944

(함경북도 연사군 신장리)

2세 대통령
백두광명성 만세

(함경북도 연사군 신장리)

백두산의 태양집
태양성 솟았다

(함경북도 연사군 연수리)

2천만 민족아
만방에 자랑하자
조선의 3대대영결

그이는 김일성 김정숙
백두광명성 만세 만만세

(함경북도 연사군 로평리)

태양빛 있어
만물이 소생하듯
2천만 민족은
김일성대장빛 있어야
소생할수 있다

(함경북도 연사군 로평리)

노예로 살지 말고
싸우다 죽자

(함경북도 무산군 만봉리)

조국이여 기억하라
그대위해 싸운
선렬들의 위훈

(함경북도 무산군 온천로동자구)

백두산에 천출장수 내려
어둠던 이 나라에
독립대통운 뒀다

(함경북도 무산군읍)

조선아 민족아 웨치라
자랑하라 그대가 낳은 김일성대장

(함경북도 무산군 새골리)

조국의 품에 안기니
지척에 있는
어머니 그리워라
용서해주오 멀지 않아
왜놈 족치고
어머니품에 안기리라

(함경북도 무산군 차유리)

문전옥답 빼앗기고
이국살이 웬 말이나
모두 일어나
빼앗긴 땅 도로 찾자

(함경북도 무산군 지초리)

푸르싱싱 소나무야
조국의 기상으로
천만년 살아서
우리의 간절한 념원
후세에 전해다오

(함경북도 무산군 독소리)

아 두만강아
김대장 위훈 담아
천만년 흘러라

(함경북도 회령시 송학리)

백두태양빛 받아
항일녀사 백두조종산에
광명성 솟아
그 이름 위대하여
조선 빛난다

(함경북도 회령시 창태리)

백두산 천출장수
조선독립장도에 오르셨다

(함경북도 온성군 왕재산리)

독립 삼천리 금수강산에
김일성장군 모시고
조선의 자랑 만방에 웨치자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김일성 반만년
조선의 대장군
백두산 너장수는
조선의 항일녀 명장군

(함경북도 온성군 삼봉로동자구)

백두산에 백두광명성 솟았다
천하제일 조선의 3대룡마
독립조선 대통운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로동자구)

2천만 동포여 조국이 광복되면
여기에 금도끼와 옥도끼로
다듬어 기념비 세워
김대장 위훈을 천세만세
길이길이 전하자

(함경북도 새별군 룡계리)

우리모두 김장군의 팔다리가 되어
그이를 옹호하고 받들자

(함경북도 새별군 연산리)

우리 민족은
약소민족이 아니다
천출명인 김일성대장을
낳은 대민족이다

(함경북도 은덕군 하회리)

농민들이여
조선독립 위하여
식량 한흙두흙 모두 모아
김일성대장 휘하
빨찌산 원호하자

(함경북도 은덕군 안길리)

백두산에 솟은
3태성 빛을 뿌리니
빛 없던 조선이 빛난다

(함경북도 라선시 백학리)

은하수빛 흘러간
길을 따라서 어서빨리
보고싶은 백두성 찾아가자

(함경북도 라선시 백학리)

푸르청청 소나무야
네 자랑하지 말고
조선의 명장 김일성장군
천세만세 자랑하라

(함경북도 라선시 사회리)

김대장 백두산의 녀장수
백두성 우리 민족의 자랑

(함경북도 라선시 후창리)

2천만 동포여 자랑하라
백두의 하늘에
백두성 솟았다

(함경북도 청진시)

항일사령관 김일성장군
조국해방 총 공격령 내렸다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부거리)

하루빨리 왜놈치고
홍겨운 창가 부르며
동해의 물고기 한껏 잡자 (함경북도 청진시 신암구역
은혜동)

가난뱅이 못산다고 한탄 말고
조국해방 10대조 배워

싸움에 나서라

(함경북도 어랑군 화룡리)

푸른 잣나무야
천만년 끈게 자라
조국광복 위해 싸운
김대장 위훈
독립연에 전하라

(함경북도 화성군 호남리)

삼천리천상에 솟아나
만민에게 광명을 주는
백두산 장수성

(함경북도 김책시 풍년리)

조선아 민족아
높이 자랑하라
아침해 밝은 내 나라에
광명성 솟아 너를 반긴다

(함경남도 부전군 백암리)

혈전만리 풍찬로숙
항일의 길
광복으로 빛내리!

(함경남도 신흥군 영웅리)

항일녀장군 배워준
십진가 자유가 메테가
적기가 높이 부르자

(함경남도 영광군 자동리)

백두성 5대양 6대주 비칠
붉은 태양으로 키우자

(함경남도 북청군 죽상리)

잘 있거라 조국—

고향땅인가!
왜놈 망하면 여기 와서
목청껏 만세 부르리라

(함경남도 단천시 석우리)

백두항일총성
삼천리에 울린다

(자강도 량림군읍)

반만년 우리 조선
백두광명성 광복조선
삼천리 태양광명국 세우자

(자강도 화평군 가림리)

2천만 민중이
조국광복전에 준비하자

(자강도 만포시 새마을동)

항일녀장수 김대장 모시고
국내출전
일본패망 멀지 않다
항일군 도우라

(평안북도 창성군 약수리)

동포여 보느냐 듣느냐
백두산에 김대장 뜻 이을
광명성 솟았다

(평안북도 대관군 평화리)

백두광명성 안아올린
항일녀장수 위훈
천만년 전하자

(평안북도 운산군 영웅리)

백두산에 광명성 뒀다
백두산광명성 삼천리 비친다

모두 광명성 바라보라

(평안남도 평성시 봉학동)

고구려 옛 성지 바라보니
나라찾을 붉은 마음
더욱 불탄다

(평안남도 평성시 상차동)

동포여 일어나라
광복일 멀지 않다

(평안남도 신양군 광흥리)

일신의 부귀보다
나라의 자유독립 생각하자
조선민족해방 만세

(평안남도 덕천시 제남동)

천출천하명인 김일성장군
백두녀장 김정숙
그들의 계승인 백두광명성
조선의 3대통운 만세

(평안남도 안주시 립석리)

백두장검
평안에 번쩍인다
목전 독립

(평안남도 문덕군 남상계리)

전민항쟁으로
광복 맞자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

평안상공에
광명성 비칠 날
멀지 않다

(평양시 룡성구역 어은동)

지척에 둔
만경대 바라보니
사향가 창가소리 들리누나

(평양시 룡성구역 어은동)

동포모두
백두산 바라보라
광명성 비친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끓주린 우리
아이들에게 자유세상
안겨주자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

우리 민족사의 대통운
김대장 항일녀장수
광명성 만만세

(평양시 삼석구역 삼성리)

항일령수 김대장
일심으로 받들자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로동자구)

숙영의 이 밤
영원히 기억하라

(황해북도 신계군 추천리)

동포들이여
모두 일어나
복수의 총창 버리고
나라위한 싸움에 나서라

(황해북도 신계군 추천리)

2천만 별무리
3태성 바라본다

(황해북도 토산군 봉불리)

2천만 동포들이여
백두광명성 솟았나니
자자손손 백두광명성 받들고
조국광복 이루자

(황해남도 은률군 산승리)

죽어도 변치 말고
일심단결하여 왜놈과
끝까지 싸워
조국해방 맞자

(황해남도 룡연군 장산리)

후세인들이여
대대로 세상에 자랑하라
민족이 낳은 3대위인

(강원도 판교군 리상리)

독립 광복 삼천리
우리 나라 세우자

(강원도 법동군 사동리)

열혈청년들이여
징병징용을 반대하고
김일성대장 찾자
백두산으로 가자

(강원도 원산시 삼태리)

조선독립위인은
김일성장군

(개성시 장풍군 가곡리)

S01.str id=2992

7

항일무장투쟁을 반영한 인민가요들

장군별

별이 솟네 별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백두산에 높이 솟네
장군별이 솟네
아 찬란한 저 별빛 우러러보며
희망이 샘솟아 가슴은 설레네
가슴 설레네

별이 빛나네 별이 빛나네
장군별이 비치네
깊고깊은 밀림에도
밝은 빛은 뿌리네
아 찬란한 저 별빛 비쳐가는 곳
희망은 넘치고 행복은 꽃피네
행복 꽃피네

(이 가사는 1930년대 동북지방에서 널리 불리워
지던것을 1970년대 초 개작하였음)

S01.str id=2993

광 명 가

무산자대중아 탄식을 말아라
부귀와 빈천은 바뀌어진다
북천의 장군별 채광 뿌리니
어둠던 강산에 동이 터온다

가련한 인생을 한탄 말아라
새날이 밝으면 복락하리라
2천만동포야 장군별 따라
빼앗긴 내 나라 광복하리라

일어나 싸우자 조선민족아
간악한 일제놈 쳐물리치고
삼천리강산에 독립기 날릴제
5천년 력사국 자랑 떨치자

(1940년대 양덕군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짐)

S01.str id=2994

백 두 산 장 수

백두산은 조선명산
산은 높고 기록하기에
백두라 함
백두의 중심에
조선독립대장 무적장수 있나니
바로 그 장수 누구이신가

그이는 조선명장 김대장이시다
김대장은 조선독립 대장이시며
만국의 명장이시다
김대장은 일본군을 전멸하고
조선반도에 태양빛 비쳐주시네
김장군의 유명한 전법에
일본군벌 쇠물처럼 녹아난다
일본군은 김대장이란
말만 들어도 쥐구멍 찾는다
그러니 조선겨레에게 필심을 준다
김장군은 천년만년 승승장구하시어
조선독립 쟁취하리라

S01.str id=2995

금란지계전

담배 피우며 생각해보라
농민들
금수같은 망국노생활
죽으면 진도될뿐
범은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 이름 남기거늘
그대의 빛 다시 찾을 때는 왔나니
모든것 다 바치자

동이 튼다 강도는 우리의것
백두산에 해 뜨고
계룡산에 닭소리 높다

백의동포 조국광복 위하여
백자령* 받들고
왜놈의 통치
창으로 깨자

정통령은 우리의
김일성 회장
김대장은 민족의 영재
하늘의 태양
복되도다 우리 조선족
오매에 그리던 당당한 기상
영세불멸이로다 (이 작품은 1937년 여름 북청지구
인민들속에서 널리 알려짐)

※ 백자령=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말함

S01.str id=2996

천하명장 김일성장군

백두산에 거연히 솟은
천하명장 김일성장군
조선과 만주를 구원할이
바로 이분이로다
에헤라 만세! 김일성장군 만세!
그 이름 위대하도다
조중인민은 단결하여
일제강도를 타도하자
(동녕현 소오사구일대에서 광범한 인민들이
동녕현성전투를 전후하여 불렀음)

S01.str id=2997

우리 장군 만세

금수강산 삼천리에 검은 구름 뒤덮이고
이 강산 넓은 땅이 피눈물에 날이 지고

하늘은 무너지고 땅이 꺼지더니
압박과 착취로 살길 없는 세상에
하늘에서 명장 한분 구름 타고 내려오셔
백두산 높은 봉에 거연히 올라서시더니
한손으로 무너지는 하늘을 떠받드시고
한손에는 번개치는 총칼을 드셨네

한번 치니 번개 일어 온 세상 뒤흔들고
두번 치니 일본군대 무리로 쓰러지네
오호라 우리 겨레 살 세상 만났고나
오호라 우리 장군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2천만 백의동포 두손을 마주 잡고
나라를 구원할 이를 목마르게 기다렸더니
하늘에서 내려오셨나 땅에서 솟아나셨나
우리 장군 김일성장군 만세! 만세! 만세!

(동녕현성전투후 이 지방 인민들이 부른 민요)

S01.str id=2998

수림속을 뒤흔드는 소리

숲속을 뒤흔들어 뚜룩 뚜루룩
들려오는 저 소리 웬 소리나
왜놈들 무더기로 쓸어놓히는
유격대의 통쾌한 사격소리지

수림속 곳곳에서 으악 으아악
들려오는 저 소리 웬 소리나
유격대의 습격 받고 황천 가는
간악한 왜놈들의 비명소리지

S01.str id=2999

바위야 굴러라

바위야 굴러라
번개같이 굴러라
쪽발이놈 코등에
불벼락을 안겨라

바위야 굴러라
구시산의 바위야
쪽발이놈 백놈천놈
지끈지끈 족쳐라 (1937년 6월 구시산전투후 불려온
노래)

S01.str id=3000

왜놈병정 벼락 맞았네

벼락 맞았네 벼락 맞았네
왜놈병정 벼락 맞았네
유격대의 꺾임에 빠져
병풍골로 기여들다
우박같은 총탄벼락
마른벼락 날벼락에
모조리 녹아났네

S01.str id=3001

《무 적 황 군》

《멸사봉공》 황군은
출행량이 목적인가
《도벌》에서 살아 온자
삼십륙계 선수들뿐

백만군세 《위용차다》
헛나발 불지 말아
저문 가을황야에 선
허재비꿀 네꿀이다

S01.str id=3002

개 눈

개눈 개눈 파출소의 개눈
요리조리 감춘 낱알
모조리 뺏아가네
아이공 데이공
아이공 데이공

개눈 개눈 파출소의 개눈
백두산의 수리개가
간밤에 잡아갔네
아이공 데이공
아이공 데이공

S01.str id=3003

순사돼지 꿀꿀

돼지가 꿀꿀
무슨 돼지 꿀꿀
보천보싸움때
순사돼지 꿀꿀

순사돼지 꿀꿀
어디에서 꿀꿀
돼지굴에 었디여

돼지인척 꿀꿀

순사돼지 꿀꿀
무엇때문에 꿀꿀
유격대 불벼락에
혼살나서 꿀꿀

저만 잘났다고
호통치던 순사놈
조선사람 등쳐먹다
돼지인척 꿀꿀

S01.str id=3004

단결의 노래

백두산의 한방울 두방울
비방울이 모여서
압록 두만 이루고
대소하천 모여들어
태평양되다

약자의 무기는
단결에 있고
우리의 승리도
단결에 있다

왜놈의 죄사슬도
단결로 끊고
우리의 독립도
단결로 세우자

(이 노래는 1930년대에 의주일대에서
널리 불렀음)

S01.str id=3005

해방가

자유의 기발이 너울너울
군민이 손잡고 춤을 출 때
봄나비 쌍쌍 가지에 매어
넘실넘실 춤을 추네
(후렴)

라라라 라라라 멋들어졌구나
라라라라 멋이로다

두만강 뛰넘어 술렁술렁이
어깨춤 추면서 뛰어가세
줄줄이 쌍쌍 발맞춰 나가니
얼싸 백두산도 춤을 춘다
(후렴)

진리의 총칼이 번쩍번쩍
인민을 위하여 옹호하자
모여라 전체 삼천만동포야
우리의 군대를 옹호하자
(후렴)

(강원도 원산)

S01.str id=3006

붉은 군인되려고

우리 가슴 붙는 불로
밝은 사회 태우고
팔다리에 흘린 피로
새 역사를 써놓자
(후렴)

결사전을 하려고
우리 오늘 일어나

몸과 마음 단련하여
붉은 군인이었다

장엄하게 동터오는
새 세상의 붉은 빛
원썩들은 녀을 잃고
가을풀잎 되리라
(후렴)

S01.str id=3007

자유의 노래

권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한마리 곤충도 만일 밟으면
죽기전 한번 움직거리고
조그만 벌도 한번 다치면
반드시 쏘고서 죽는 법이다
철사 주삭으로 결박한것을
우리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자유로운 세상을 세워봅시다

(평양 강서)

S01.str id=3008

차 일 봉

백두산을 뒤에 두고 앉은 봉
굉장하고 굉장할사 차일봉이라
만천산을 아래 두고 솟은 기상은
억만군을 호령하듯 독립장이라

차고찬 흰눈을 이마에 이고

만주별관 맹렬한 풍 치고치어도
철석같이 굳게 섰으니
피로움을 무릅쓰이 이와 같고나

푸르고 푸른 동해물결 싸고 씻어도
그 정기 변할소냐 차일봉이라
억만년 흘러가도 솟은 기개는
굽힐줄 모르도다 차일봉이라

(함경남도 북청군)

S01.str id=3009

향 토 가

자랑하는 두류산에 안개 걷히고
맑은 시내 굽이굽이 흘러가는 곳
호미 메고 소를 몰아 시름없으면
감자 파고 귀리빼는 복터이라네

노래를 하자 자랑을 춤을 추자 기쁨을
이 교장은 합수라 물이 모이는
이곳은 별곳이라 부러워한다네
우리 마을 이 마을 진달래 피네

(량강도 혜산)

※ (이 노래는 《유격대행진곡》에
맞추어 부르던것임)

S01.str id=3010

유 격 대

파릇파릇 봄풀은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요
억압착취 받는 우리들은
유격대 오기만 기다린다네

앞마당의 함박꽃은
바람만 불어도 방긋 웃고요
언제나 잊지 못할 유격대는
인민들에게는
언제나 웃음이라네

처마끝에 제비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요
김일성장군 지휘하는 유격대는
언제나 동무들을 사랑한다네

(평안북도 염주군)

S01.str id=3011

처녀보초병

새별 반짝이는
하늘아래서
보초병 처녀는
마을을 지키네

먼먼 산도 지키고
거리도 지키고
동쪽에서 서쪽
사방을 살피네

어데서 어데서
대오가 오는데
군복에 총 메고
씩씩한 군대

치녀동무 우리는
조선인민혁명군
산 넘어 일본놈
치러 간다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

S01.str id=3012

벼락 맞았네

벼락 맞았네 벼락 맞았네
왜놈병정 벼락 맞았네
유격대의 꼬임에 빠져
병풍골로 기여들다

우박같은 총탄벼락
집채같은 바위벼락
마른벼락 날벼락에
모조리 녹아났네

(량강도 보천군)

S01.str id=3013

하루밤사이에

칼치장사* 성나서
긴 칼을 번쩍번쩍
죄없는 백성을
사정없이 죽치더니

하루밤사이에
모가지가 텅경
백두산 호랑이가

물어갔구나

(평안북도 신의주)

※ 칼치장사—일제의 순사를 가리킴

S01.str id=3014

초 신

아버지 초신 지고
어디메 가시오다
장에 갖다 팔아서
엿이나 사다줄가

장 보러 가시려면
곁부터 틀렸수다
더더구나 이밤중에
장은 무슨 장이요

옳지옳지 알았수다
거기 가지시오다
백두산 그분들께
드릴 신이지오다

에끼 요놈 입 다물고
잡이나 자라
아버지 안심하고
잘 땡겨가시오다

(량강도 갑산)

※ 이 노래는 항일빨찌산들을 돕는
후방인민들이 부르던 노래이다.

S01.str id=3015

혁명의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홀로 남아서
그리운 아들생각에 눈물 흘린다
나라없는 백성의 피눈물이다
언제나 자유로이 살수 있겠는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적인다고
우리라고 언제든지 짓밟혀 살줄 아느냐
정의의 칼날이 번쩍이려는
네놈들도 망할 날이 멀지 않으리라

뜰앞에 핀 국화는 시들어가고요
나무잎은 바람에 몸부림치네
달빛어린 창문을 남몰래 열고
저 산 넘어 북쪽하늘* 바라봅니다

(중국 길림성 안도현)

※북쪽하늘=항일빨찌산이
활동하는 지구를 가리킴

S01.str id=3016

혁명가의 안해

태양은 비치어도 캄캄한 이 세상
혁명을 위하여 떠나간 님이여
사랑의 열정도 잊어버리고
계급의 전선에 몸을 바쳤네

후방에 있는 너성의 이몸도
달리어 나아가서 원썩을 죽이고
혁명의 기발이 펄펄 날릴제

포옹의 품안에 안기렵니다

(평안남도 순천군)

S01.str id=3017

망국노예 설음

돈과 집을 다 빼앗기고 약한 이몸이
가련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구나
하루아침 이슬같이 다 쓰러진들
불쌍하다 동정할 자 그 누구인가
동과 서에 남에 북쪽 갈곳 없으니
오직 넘어갈 곳은 백두산이라

남북만주 황악무지는 내 땅 아니고
천추만대 나 살아오던 고향을 버리고
민족 다르고 풍속 다른 이내 이몸은
남북으로 방황하니 기가 막힌다
부모없고 의지없는 이내 신세는
다만 솟아나는것은 눈물뿐이다

S01.str id=3018

자위단 자탄

조선을 하직하고 만주로 올 때
살 길을 개척하려 이곳에 왔더니
일본놈이 또 따라와 못살게 한다

우리 부모 동생들은 배고파 울고
이내 몸은 불쌍히도 자위단 뽑혀
원썬놈을 위한 죽엄 견게 되었다

불쌍하다 청년 이몸 밤낮으로써

대문과 포대에서 징역 살다가
장관놈의 구속압박 받을수 없네

그리다가 어느날 밤 혁명군들이
기관총을 놓으면서 고향칠 때에
혼비백산 났을 잃어 십년감수라

《토벌명령》 받은 이몸 싫은 총 메고
놈들에게 끌리어서 몰아다니며
죽엄의 슬픈 길로 떠나가노라

유격지대에 선두에 서서 들어와보니
몰사격 털같이 총탄치는데
하늘에서 벼락불이 떨어지는듯

모퉁에서 콩 닳는듯 몰사격소리
아악하며 달려오는 혁명군들은
우리들은 도망할제 할수 없고나

어찌다가 요행 살아 돌아왔다고
일본놈은 《빠가》소리 기가 막힌다
이런 학대 저런 죽음 받을수 없네

아! 이내 몸도 썩썩한 남아가 되어
원쭉놈들 쏘아서 칼탕치고서
자기 민족 위하여 싸워나 보자

※ 이 노래는 일제가 조작한 《만주국》의 《자위단》이 된 사람의
신세한탄과 새로운 결심을 표시한것임.

《도벌》가

흐르는 눈물을 씻어 닦으며
야야 수동아 너의 아버지는
엄동설한 찬바람을 지나 북간도
떠나가신 이후로 오늘까지
한번도 못보니 이에 이르니
어언간 삼춘은 지나갔도다

전보에 이르기를 간도토벌대
고려사람 농촌을 습격을 하니
힘이 없고 의지없는 고려동포들
애처롭고 슬프다 원쑤의 손에
불에 타고 칼에 찔려 죽은 자중에
네 아버지도 그가운데 한사람이다

슬프다 가세빈궁
암암이요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야야 수동아 야야야야
네 아버지 돌아오기 오늘날까지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였건만
그도 또한 허사요 쓸데가 없다

야야 수동아 네 빨리 자라
네 아버지 원쑤를 갚는 날이면
이내 몸은 죽더라도 눈을 감겠다

S01.str id=3020

평양감옥가

이야 평양감옥아 네게 묻노니
이곳에 생긴지 몇몇해드냐

너와 나와 두사이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이 인연 깊어졌으랴

끼마다 먹는 밥은 맨 콩밥이요
밤마다 자는 잠은 새우잠이다
맨 콩밥이 맛이 있어 누가 먹으며
새우잠이 편해 누가 잘소냐
동무야 동무야 붉은 동무야
네 죄는 무엇이며 내 죄는 뭐랴
절도강도 사기도 내 죄 아니며
제령치안*악법도 내 죄 아니다

※ 제령치안=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법인
《제령법》과 《치안유지법》을 말함.

S01.str id=3021

한 양 감 옥 가

검은 쇠로 옥문을 굳게 닫았다
무서운 암흑이 누르고있다
혁명자 쇠사슬에 얽매였으니
이곳이 한양의 감옥이로다

포악한 원썬들의 채찍밑에서
귀중한 우리들의 불굴의 전사
살점은 어여 지고 뼈를 깎이니
원썬의 모진 감옥 한양감옥
음산하고 서리찬 단두대우에
영웅의 귀한 피가 스미어들 때
강철같은 굳센 정신 다지여내니
감옥은 혁명의 불을 붙인다

도시와 농촌에서 무리를 지은

혈벗고 굶주린 천백만군중
소리쳐 일어난다 혁명은 온다
철문을 마술 때가 멀지 않았다

S01.str id=3022

경성감옥가

혁명불길 타오르는 만주별판에
결심 품고 전투장에 날으던 몸이
경성감옥 갇힌후에 몸은 시드나
혁명의 붉은 기세 시들어지랴

폭탄 안고 내닫던 우리 전우들
생금*되어 원통하게 갇히었건만
달밝은 철창밖에 우는 새들도
제국주의말로를 재촉하노나

달빛아래 증첩한 철창속에는
피가 끓는 용사들이 차고 넘쳤다
제국주의아성을 짓부시다가
생지옥 철창속에 갇혀있고나

용감하게 싸우던 우리 동지들
감옥안에 갇힌후에 몸은 시드나
혁명의 붉은 기세 시들지 말고
원썬들의 감옥문을 때려부시자

※ 생금=불잡히는것

S01.str id=3023

연길감옥가

바람 세찬 남북만주 광막한 들에
붉은기에 폭탄차고 싸우던 몸이
연길감옥 갇힌 뒤에 몸은 여웨도
혁명으로 끊는 피야 어찌 식으랴

간수놈의 불멘 소리 높아만 가고
때마다 먹는 밥은 수수밥이라
밤마다 새우잠에 밤을 새우니
내 사람 여러 동지 안녕하신가

기다리던 면회기일 돌아오며는
슬프도다 나의 부모 정든 처자는
철창밖에 비껴서서 눈물 흘릴제
간수놈이 가라고 하니 애타는 리별

금전에 눈 어둡고 권리로 사는
군벌떼와 협잡패들 살인귀로다
꿈속에도 잠꼬대 억울한 판결
청춘을 옥중에서 시들게 한다

너희는 목석같은 강도놈이다
우리는 평화 찾는 로농혁명군
정의의 총칼은 용서없으니
어느 누가 죄인인가 판결하여라

팔다리에 철쇄차고 자유없는 몸
너희놈들 호령에 굴복할소냐
오늘 비록 놈들에게 유린 당하나
다음날엔 우리들이 사회의 주인

감독놈과 개들아 안심말아라
칠십일만 넓은 들에 적기 날리고
4억만의 반일대중 돌격소리에

십진가 (2)

하나이라면
한평생 좋던 곳을
다 버리고서
쓸쓸한 북만주에
내 여기 왔네

둘이라면
두팔이 부러지게
보따리 쥐고
힘한 천리 쫓기여오니
북만주로다

셋이라면
서서 근심 앉아 근심
장근심이요
살 일을 생각하니
기가 막힌다

넷이라면
넌다란 소문이
굉장하더니
현지에 와서 보니
축대밭일세

다섯이라면
다소한 가족이
다 굶으니
어린 아이 밥 달래서
기가 막힌다

여섯이라면
녀자나 남자나
단결하여서
우리 힘을 일제놈께
시위해보세

일곱이라면
일가친척 고향산천
그리우면
일제와 싸워서
조국을 찾자

여덟이라면
팔자가 기 막혀
만주 왔던가
일제놈들 압박착취
피하여 왔지

아홉이라면
아무곳의 일제놈은
매한가지라
아껴먹는 강낭죽도
탁부족이다

열이라면
열심으로 모으자
우리 동포들
단결하여 싸워서
조국을 찾자

백이라면
백의민족 우리 조선
동포들이여
조국없는 원한을
싸워나가자

천이라면
천만백성 단결하여
결전을 하자
우리 조국강토에
민주 세우세

(원산)

※ 이 노래는 본래제목이 《숫노래》였음.

S01.str id=3025

요 일 가

일요일이라
일 삼고 박해하던
일본놈들을 일본놈들을
한바다 깊은 물에
막 쓸어넣자 막 쓸어넣자

월요일이라
월색아래 행진하는
붉은 군대는 붉은 군대는
전 세계 무산계급의
선봉대이다 선봉대이다

화요일이라
화차는 떠나려고
고동을 울리고 고동을 울리고
붉은 군대 전선에
나간다 나간다

수요일이라
수없이 일어나는
혁명투사는 혁명투사는

조선독립건설에
힘을 쓰노나 힘을 쓰노나

목요일이라
목적없이 진공하던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는
춘삼월에 눈녹듯이
막 쓰러진다 막 쓰러진다

금요일이라
금은보화 가진 놈들
족쳐버리고 족쳐버리고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해가자 건설해가자

토요일이라
토지 뺏아 호사하던
지주놈들을 지주놈들을
이 세상에 그림자도
없애버리자 없애버리자

S01.str id=3026

달 거 리

정월이라면
전 세계 무산자는
단결하여라 단결하여라
로동자 농민들
단결하여라 단결하여라

이월이라면
이 세상에 악독한
자본가들을 자본가들을
지구상에 한놈없이

박멸하여라 박멸하여라

삼월이라면
삼월일일 고려반도
만세소리에 만세소리에
일본놈에게 죽은 동지의
복수를 갓자 복수를 갓자

사월이라면
사정없이 떠나가는
군인실은 차 군인실은 차
고동으로 하직하고
살같이 간다 살같이 간다

오월이라면
오월일일 노동자의
큰 명절일세 큰 명절일세
자본가의 압박착취
반대를 하세 반대를 하세

륙월이라면
륙대주에 널려있는
무산대중아 무산대중아
엎매인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칠월이라면
침침한 감옥속에
있는 동무들 있는 동무들
엎매인 족쇄를
끊어버리자 끊어버리자

팔월이라면
팔도로 분한 조선
넓은 천지에 넓은 천지에

일본강도 주는 압박
극심하여라 극심하여라

구월이라면
구라파전쟁에
어찌 가리요 어찌 가리요
일어나라 싸우라
붉은 군인아 붉은 군인아

시월이라면
시월혁명 아동단에
꽃이 피었네 꽃이 피었네
나무기대 붉은 기발
펼럭이도다 펼럭이도다

동월이라면
동서양의 편지는
붉은 편지라 붉은 편지라
제국주의 때려부실
붉은 편지라 붉은 편지라

설달이라면
선생인 레닌동지
가르친대로 가르친대로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라 또 배워라

(평양)

S01.str id=3027

옹 헤 야

일본강도 때려부서
승리했네 옹헤야
평화락원 옹헤야

혁명정부 옹헤야
건설하세 옹헤야
아하하하 옹헤야

원쭉놈의 철옹성도
쳐부셨다 옹헤야
유격대의 옹헤야
령도 받아 옹헤야
유격지구 옹헤야
확장한다 옹헤야
아하하하 옹헤야

반혁명의 매국무리
매장한다 옹헤야
인민정권 옹헤야
건설하세 옹헤야
무궁화로 옹헤야
꽃 피우세 옹헤야
아하하하 옹헤야

(평안북도 운산군)

※ 이 노래는 1930년대 유격대원들이 북만주
특히 동녕현근방에서 많이 불렀음.

S01.str id=3028

어 랑 타 령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름마 지여라
어랑타령이로구나

어랑타령 본고향은
강원도 원산이구요

이내 나두 본고향은
백두산천지라네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백두산천지로다

독수리새 뜬 곳에
병아리 간 곳이 없구요
백두산호랑이 가는 곳엔
족발이 간 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말구
호랑이세상이로구나
자라보고 놀란 놈
솔뚜껑보고 놀란다더니
백두산호랑이 말만 들어도
족발이 덜덜 떠누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름마 지여라
어랑타령이로구나

일락서산에
해가 똑 떨어지니
백두산호랑이 따웅소리에
족발이 모가지 떨어지네

어랑어랑 어허야
어허름마 지여라
어랑타령이로구나

(황해남도 안악군)

※ 이 노래는 1930년대 동북 목단강시
조선인부락에서 많이 불리워진것임.

아리랑고개를 허물어버리세

×

(전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가소

우리네 원쑤를
모두 처단하고
진정한 내 나라
세워 싸우자

(전렴)

춘삼월 호시절이
어느덧 돌아와
아지랑은 이내 심정
태워버리네

(전렴)

발 갈고 씨 뿌리니
한시름은 났건만
걱정은 산갈아
주름살이 주루룩

(전렴)

태양처럼 바라보는
곡식물결이
우리네 손땀맛에
에루화 춤추네

(전렴)

팔월추석 돌아와

가을해야겠건만
홍이란 어데서도
찾을 길 없구나

(전렴)

이몸을 살려주려
풍년바람 불어와
이삭은 늘어져
풍년을 알리네

(전렴)

황금이 삭 물결치는
풍년이건만
뽕파리소리는
들을수 없구나

(전렴)

일년내 땀흘려
농사했건만
얻은것은 에루화
땀값도 못되네

(전렴)

에루화 칭칭
무더운 여름날엔
느티나무그늘에서
낮잠만 자던 놈

(전렴)

가을이 되어오니
웬 일이 생겼더냐
갑자기 부지런히
싸다니누나

(전렴)

온 종일 돌아가다
맥 풀렸던지
앞잡이를 찾아가
호통이로세

(전렴)
남의것을 뺏아다가
지나치게 쳐먹고
자란것은 도적과
배때기뿐이네

(전렴)
이집저집 돌아가는
지주놈의 앞잡이
그놈그놈
다 죽여야지

(전렴)
백성의 피를 빨아
호의호식하는 놈
천하에 용서 못할
략탈자들

(전렴)
장부들이 비수 들고
골목길 지키다가
개같은 지주놈
단매에 처단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허물어버리세

앞마을 뒤마을
농부들아 들어라
우리모두 힘을 합쳐

원쭉치세

(전렴)

아리랑고개를
허물어버리고
이 세상의 략탈자도
처단해야지

(전렴)

지주놈의 앞잡이도
나쁜놈이니
장검으로 서슴없이
목을 베야지

(전렴)

근로계급 략탈한 자
조금도 용서없이
모두다 한칼에
처단하자

(전렴)

가난한 백성들
한데 모여
행복한 동산을
어서 만드세

(전렴)

착취자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있는 힘 다 바쳐
내 나라 지키자

(전렴)

착취자 다시는
생기지 못하게

우리모두 하나로
단결해 싸우세

(전렴)

(함경남도 함흥시)

※ 이 노래는 1930년대 금야지방에서
농민들이 부른것이다.

S01.str id=3030

소년투사의 노래

자유의 총과 칼을
기운차게 비껴들고
모여오라 소년투사
우리 나라 삼켜먹고
부모혈육 빨아먹는
일제치러 나아가자
사랑하는 나라 건져
일제마귀 소탕하자
복수위해 하나들
혁명군을 본 따르어
힘차게 대렬짓자
마귀소굴 불 지르자
우리 꼬마 소년투사
자유평등 다 잘사는
새 조선을 건설하고
꽃동산에 춤을 추자

(중국 길림성 돈화현)

S01.str id=3031

우리 아빠 말하더라

우리 아빠 말하더라
백두산술개는 이상도 하지
사시장철 사냥한단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화를 치면
콩 닭는 놈* 빠짐없이 잡아치운다

※ 콩 닭는 놈=총쏘는 왜놈의 병정을 가리킴.

S01.str id=3032

단심가

단심일세 단심일세
우리 마음 단심일세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우리우리 단심일세

항오*를 잃지 말아라
동서남북 열세집*에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자유독립 단심일세

(황남 해주시)

※ 항오=대오, 대렬
※ 열세집=조선 13도를 의미함

S01.str id=3033

단 심 줄 놀 이

모여라 모여라
착취와 압박에
울음을 우는 동무들
붉은기앞으로 모여라
모여라 힘을 합치자

내몰자 없애자
일제놈들을
동해의 바다로
내몰자 없애자
우리의 손으로

모여라 로동자
한데 뭉쳐라
괭이와 망치를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모여라 농민들
한데 뭉쳐라
호미와 낫을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모여라 병사들
한데 뭉쳐라
총과 칼을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모여라 학생들
한데 뭉쳐라
펜과 책상을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모여라 녀성들

한데 몽쳐라
식칼과 밥상을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싸워라 전 민족이
한데 몽쳐라
팽이와 망치를 둘러메고
싸움판으로

S01.str id=3034

눈

짜락짜락 하늘에서
짜락눈이 내려와요
떡쌀인가 밥쌀인가
밥쌀이면 밥을 짓고
떡쌀이면 떡을 빚어
장백밀립 보내가게
짜락짜락 자꾸 오나

남실남실 하늘에서
가루눈이 내려와요
떡가루냐 엿가루냐
엿가루면 엿을 다려
섬미친개* 벼락 주는
장백밀립 보내가게
남실남실 자꾸 오나

(중국 길림성)

* 섬미친개=일본제국주의자들을 가리킴

S01.str id=3035

밥값내라 칙칙폭폭

목도군아 밥값내라 칙칙폭폭
남포군도 밥값내라 칙칙폭폭
없애치라 발바리*를 칙칙폭폭

도비군*아 밥값내라 칙칙폭폭
구르마군도 밥값내라 칙칙폭폭
없애치라 왜가리*떼 칙칙폭폭

대두박밥 소금국도 밥값내라 칙칙폭폭
밥값대신 받으렴 만보쪼각* 칙칙폭폭
없애치라 함바*개를 칙칙폭폭

삼수갑산 박달나무 칙칙폭폭
동틀날에 창가 맞춰
고향 간다 칙칙폭폭

천지의 꽃씨*는
온 조선 꽃 피운다 칙칙폭폭
천지의 맹호*는
남을 향해 따옴한다 칙칙폭폭

(함경남도 리원)

* 이 노래는 항일빨찌산의 한 지하공작원이 함남북일대에 보급시킨것임

발바리=일본놈 십장

도비군=높은 곳에 올라가 일하는 연공로동자

왜가리=왜놈

만보쪼각=임금전표

함바=로동자들의 합숙

천지의 꽃씨=항일빨찌산들의 투쟁을 의미함

천지의 맹호=항일빨찌산들을 의미함

Editorial Note

- This reconstructed edition was assembled from the book-level record 'S01.str:16802' and its embedded table-of-contents link table.
- OpenAI Codex handled the local reverse-engineering workflow, extraction scripts, link-table parsing, LaTeX generation, and compilation checks, with assistance from a GPT-5-series language model.
- The original link relationships are preserved in the JSON and Markdown files written beside this TeX file.
- Some low-level typography and control codes from the source application are still only partially interpreted, so this edition should be treated as a practical structural reconstruction.